

읍기

읍기

2018년 6월 17일 초판 발행

펴낸이 이재철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옴기

작성

읍기 1:1-22 | 정한조

읍기 2:1-13 | 정한조

읍기 3:1-26 | 정한조

읍기 4:1-21 | 송호욱

읍기 5:1-27 | 정재규

읍기 6:1-30 | 정한조

읍기 7:1-21 | 정한조

읍기 8:1-22 | 정한조

읍기 9:1-35 | 정한조

읍기 10:1-22 | 김영준

읍기 11:1-20 | 이동규

읍기 12:1-25 | 정한조

읍기 13:1-28 | 정한조

읍기 14:1-22 | 정한조

읍기 15:1-35 | 정한조

읍기 16:1-22 | 김광욱

읍기 17:1-16 | 이성실

읍기 18:1-21 | 정한조

읍기 19:1-29 | 정한조

읍기 20:1-29 | 정한조

읍기 21:1-34 | 정한조

읍기 22:1-30 | 김신년

읍기 23:1-17 | 임용완

읍기 24:1-25 | 정한조

읍기 25:1-26:14 | 정한조

읍기 27:1-23 | 정한조

읍기 28:1-28 | 정한조

읍기 29:1-25 | 강요섭

읍기 30:1-31 | 김대인

읍기 31:1-40 | 정한조

읍기 32:1-22 | 정한조

읍기 33:1-33 | 정한조

읍기 34:1-37 | 정한조

읍기 35:1-16 | 이광희

읍기 36:1-33 | 김현준

읍기 37:1-24 | 정한조

읍기 38:1-41 | 정한조

읍기 39:1-30 | 정한조

읍기 40:1-24 | 정한조

읍기 41:1-34 | 백정수

읍기 42:1-17 | 김신년

1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욥기 1:1-22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

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
 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서 물러가니라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
 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
 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
 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
 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
 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
 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
 통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
 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
 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
 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
 지 아니하니라

욥기의 개관

욥기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욥은 노아 홍수와 모세 시대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몇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욥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출애굽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라면,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할 텐데,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 시대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욥기의 기록 연대는 훨씬 후대라고 짐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욥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제사장이 찾아오거나, 욥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욥의 수명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장성한 10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나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성경(septuagint)’에는 욥이 24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년을 살았는데, 그보다 좀 더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입니다. 욥기의 주제 구절 중의 하나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순금이 아니며, 순금이 되려면 금이 아닌 온갖 불순물이 빠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단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즉 인생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혹 어떤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인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이 살았던 지역은 ‘우스’였습니다.¹ 우스가 어디인지 정확하के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아래쪽에 위치한 에돔의 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우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보다 우스가 어디에 위치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욥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는데, 욥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였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욥

¹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

이 스스로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13:26)”라고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정직하였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곧은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욕이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한 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욕은 바로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욕에게는 자녀가 열 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일곱 명, 딸이 세 명이었습니다.² 숫자 10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가득찬 숫자_만수’라고 합니다. 또 그가 가진 가축에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가 있었고, 소 500여리와 암나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과 낙타 수를 합하면 만수 10의 1,000배인 10,000마리이고, 겨리소와 암나귀의 수를 합하면 만수 10의 100배인 1000입니다. 그만큼 가축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고대에 재산으로 여겨졌던 종의 숫자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욕은 아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사이도 좋았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혹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욕은 아주 안정적이고도 경

²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2-3절)

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방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방인의 땅에 살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가정, 반대와 박해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부자인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적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넉넉하여 자신의 소유를 더 신뢰하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체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천상^{天上}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종 욥 봤지? 그 사람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맞받아쳤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겨서 남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겠습니까?”라는 뜻일 겁니다. 사탄의 말이 계속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10절). 사탄의 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돌려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울타리에 안에는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여러 가지를 막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과 13절은 동일하게 ‘하루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천상 회의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어른의 자녀들이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남아라비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고 자신만 겨우 살아 도망을 와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곧 이어서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을 와,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르기를 갈 대아^{비벨로니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보고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모두 깔려서 죽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보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지, 각 종들의 보고를 연결하는 말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입니다. 앞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이 일들은 문자 그대로 눈 위에 서리가 내린 설상가상^{雪上加霜}이고, 화는 홀로 오지 않고 겹쳐서 온다는 말인, 화불단행^{禍不單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욥의 행동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21-22절).

욥이 당한 고난은 지금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욥의 예는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입니다. 당시에 욥보다 부자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에 모두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

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욥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참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혹 주변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감추어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 주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혹 내가 고난의 과정의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꾸어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갈고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르튀스의 삶과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휘페레테스의 삶을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욕기 속으로 말씀과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고서,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과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다함이 없고,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 주님의 신실하심이 큼니다”는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서, 새벽마다 욕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신비하고도 크게 해주십시오.

욕기 고난을 당하기 전, 신실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욕기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 날에 잃는 엄청난 일을 겪어도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것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마르투스라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휘페레테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믿음과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3. 욥이 '하루'에 겪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4. 당신의 지난 삶 가운데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5. 욥처럼 고난을 당하여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2

친구 세 사람이

욥기 2:1-13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 왔나이다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1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라 그들이 읍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읍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읍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읍의 두 번째 시험(1-10)

읍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자이면서도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읍에게는 소 500여리와 나귀 5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겼고, 종들은 죽임 당했습니다. 또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양이 무려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순간에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3,000마리의 낙타를 노략질해 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견디기가 어려운 일인데, 광야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집 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그의 7남 3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읍은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어떻게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상회의가 읍이 당한 일의 시작이었으므로 읍으로서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하루는’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욥에게 또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벧전5:8)이 본성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3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장에서 두 번 언급하신 데 이어 여기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까닭 없이 욥을 쳤지만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욥이 스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를 빼앗기는 것도 보셨고,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 죽는 것도 보셨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낙타가 노략질 당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강풍으로 집이 무너져 욥의 열 명의 자녀가 죽게 되어, 욥이 열 명의 자녀를 합동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

니십니다. 이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옴을 향한 칭찬에 동의하지 않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4-5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 속담이나 격언으로 혹 상대의 가죽에 손해를 입히면 가죽으로 보상할 때 썼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또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꾼다는 것은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아직 그의 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범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뼈와 살, 곧 생명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욱을 할 것입니다.”의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옴의 건강에 손을 대는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옴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옴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7-8절).

악성종양이 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덮었습니다. 옴이 재^灰 위에 앉았습니다. 옴이 재를 바르거나 뿌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잿더미에 앉은 것을 보아서 그의 마을 우스 주변에 있었

던 쓰레기를 태웠던 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켜려는 계락을 모르드개가 알고난 이후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에4:1)”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 많던 짐승들과 종들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 명의 자녀는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온 몸이 악성종양으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을 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피가 나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세게 계속 긁어서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굽지 못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손가락으로 되지 않아서 질 그릇 조각으로 굽어야 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그에게 토로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9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욥의 아내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녀는 복을 순전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녀의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마귀의 협조자’, ‘사탄의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욱의 아내도 이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겪고 있습니다. 악성종양이 남편의 몸을 뒤덮을 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 봐야 하는 고통도 참 큼니다. 또 그 많던 가축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욱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함께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일곱과 딸 셋은 모두 욱이 낳지 않았고, 그의 아내가 배 아파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한날한시에 죽었으니 어찌면 욱의 고통보다 그의 아내의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 말은 깊은 비명입니다. 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그 고통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 방문(11-13)

그 때에 욱의 친구 셋,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살았지만 욱에게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을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친구, 직장동료 등이 엄청난 일을 겪어 찾아가 봐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 일을 듣는 것만 해도 감당이 잘 안되는데, 내가 가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때는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욱의 친구들도 그리하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 찾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의 몰골이 너무 상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인 것을 알아보고서는 일제히 통곡하며, 욥과 같이 겹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13절).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7일은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곡 기간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곁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욥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어설픈 말보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내 자신들의 지식, 가설, 관례 등으로 욥을 정죄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욥이 하나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려서 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15:13)”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이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마르뒤스와 휘페레테스로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소유했던 것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을 볼 때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욥처럼 갑자기 건강을 잃은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무절제하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볼 때는 욥의 친구들처럼 가서 말없이 함께 있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욥에게 어떤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3.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차 방문했을 때의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4.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분의 증인과 종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3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1-26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 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6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7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으로구나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13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4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

며 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 게서 놓이느니라 20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 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24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생일 저주(1-26)

3-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논쟁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3번에 걸쳐서 주거나 받거나 합니다. 이 대화는 지루하게 느껴져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장과 마지막 42장의 내용만 알고, 1-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42장에서 다시 복을 받았으니 욥의 믿음을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본받자고 합니다. 그러나 3-41장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42장의 감동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3-41장의 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이 깊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전의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욱에게는 양, 낙타, 소, 암나귀 등의 가축이 10,000마리가 넘게 있었고, 10남매가 있었으며,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욱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양이 가득했습니다. 욱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알아보고서는 그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일 밤낮이 지나고서 마침내 욱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1절).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몹시 슬퍼합니다. 욱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무렇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나 로봇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의 날을 하찮게 여겼다’입니다.

첫 번째로, 3-10절에서는 욱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하였더라면”을 반복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 수와 달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 하였더라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때에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 자신이 태어나게 되었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19절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11-12절). 자신이 사산死産 되었으면 가장 좋았겠고,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겠고, 태어날 때에 조산사助産師가 받아주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고, 태어났더라도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한탄의 의미는 과거를 말하고 있어도, 현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휴-”하고 한숨을 쉬며, “내가 저 인간을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던 말인가?”라고 꾸짖는다면, 그 자녀를 낳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지금 자녀의 모습이 안타깝고, 속이 상한다는 의미인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20-26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20-21절).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이고, 생명을 주셨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라고 합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의 제1번은 욥 자신입니다.

차라리 빛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처참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도 않고, 보물(부)을 얻는 것보다 죽음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25-26절). 욥의 독백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기지개와 하품을 하는 순간에 사장님이 나타나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극단적인 머피의 법칙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가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축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십 마리씩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없어지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없어졌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제 건강만은 잃지 않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온 몸에 악성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에는 평안이나 쉼이 없고, 태풍만 휘몰아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단 하루에 그 많은 가축과 자녀를 잃고서도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1:21). 또 몸에 악성종양이 뒤덮고 있고, 아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의 고백은 한결 같았습니다.³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도 않았던 욥이, 일주일간의 침묵 후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입을 엽니다. 욥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이 맘에 들지 않을 때, 부모님에게 “누가 낳아 달라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왜 태어나서…”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낳아 달라 했어요?’는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는 자신에게 이

³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조하지 아니하니라(2:10)

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은 “하나님, 누가 나를 낳아 달라 했습니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았을까?”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깊은 한숨과 탄식을 쏟아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평안함과 쉼이 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십자가 위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긴 터널의 과정을 거친 그의 믿음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리게 해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인 것

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르투스님과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고, 온 몸이 악성종양으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고통해야 했으며, 방문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방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한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마르투스님과 휘페레테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거룩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3.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에게 미쳐서 평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던 것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혹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읍이라 불리는 사람

읍기 4:1-21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6 네 경외함이 네 자량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밟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12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16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

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1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욥의 절규와 탄식을 들은 친구들은 그가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할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세 친구 중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고 욥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 지는데 친구들의 말에 대해 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순금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 기록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분량도 많고 그 내용도 격언, 우화, 교훈, 격려, 찬송, 계시, 경험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근거해서 철학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권선징악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수무책(1-6)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욥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3-4절).

욥은 한때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저히 자신을 일으킬 만한 힘조차 갖지 못한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이제는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은 도와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속수무책인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던 관리들과 많이 닮았습니다(눅23:35⁴).

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눅23:35)

엘리바스의 말에 욕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지난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7-11)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 논지가 7절에 잘 나타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7절).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착한 행동은 칭찬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욕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욕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환상으로 말미암아(12-21)

마지막 12절부터 21절에는 엘리바스가 경험한 계시에 대한 설명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을 말합니다(12-13절). 이 모습은 마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 많은 성경 속의 인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처럼 엘리바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인간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의 핵심 요지는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욥이 지은 죄의 결과이고, 유한 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순전할 수 없다. 고난은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대가이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누구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욥은 이와같은 말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책까지 이야기 한 엘리바스의 말에 크게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바스가 한 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

님께서 사역하시며 세리, 죄인, 불결한 자, 간음한 자를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바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책감에 움짱 달짝 못하게 몰아세우며 그들을 정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이 필요했지만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욥의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는 욥의 절규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욥에게 말했고, 자기가 경험한 계시를 절대화시키며 무분별하게 욥에게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말씀도 때와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면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생명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독이 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과 처지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고, 만나주십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절대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르티스와 휘페레테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욱의 상황을 지켜보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욱에게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2. 본문의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3-4절)
3.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해 봅시다. (7절)
4.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한계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만큼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상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봅시다. (12-21절)

5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욥기 5:1-27

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뒷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14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17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 여섯 가

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2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23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27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논리(1-7)

엘리바스는 5장에서 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변론과 훈계를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는 철저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6-7절). 결코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또한 죄의 필연적 결과라는 말입니다.

욥이 죄를 저질렀기에 고난을 겪는 것이고, 누구에게 호소를 한다 해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근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을 그칠 것을 훈계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엘리바스의 해결책(8-16)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여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가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8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든, 평안하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에 ‘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여 함께 아파하는 마음보다는 엘리바스 자신은 욥보다 낫다는 우월적 위치에서 충고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상담할 때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월적인 위치에서 훈계하려고만 하는지 늘 잘 살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9-16절). 그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비와 물을 공급하시며,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명과 결론(17-27)

5장 마지막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18-20절, 새번역)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후에 결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우리”)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므로(27절) 옳은 이 결론을 명심해서 듣고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마치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중요한 두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거나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험 속에 또 자연의 법칙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각이나 자연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았습니다만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에만 집중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음과 삶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간과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함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늘 바른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바른 소리보다 주님의 시선이 담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의 한마디와 눈물 한 방울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시선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로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혜와 긍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고 상대에게도 흘러들어, 주님께서 모두의 삶을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엮어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도구로 늘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

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3.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4. 엘리바스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나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6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게

욥기 6:1-30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저 참겠느냐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 누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 따듯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27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28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 너희는 돌이켜 행약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놀림(1-13)

욥기 6-7장은 엘리바스가 4-5장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욥의 반론이자 하소연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4:7-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5:8).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두 한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그렇게 많던

네 재산이 어떻게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겠나? 네 범죄할 때 문이겠지!”, “네 아들딸들이 한낱한시에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네가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원가를 뿌렸기 때문이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롬6:23)”이라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욱이 겪었던 일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욱을 향해 갖고 있었던 잣대는 “내가 보건대...”와 “나라면...”입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운운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이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엉터리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공서적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해야 한다’, ‘자녀교육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등등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책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경험적으로 맞는 말일지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욕의 고난이 인과응보라는 엘리바스의 지적에 욱이 입을 열

어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2-3절).

옴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단위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저는 ‘경京’ 정도까지 압니다. 만의 만 배는 ‘억億’입니다. 억의 만 배가 ‘조兆’입니다. 억의 억 배가 ‘경京’입니다. ‘억’은 동그라미가 8개이고, 조는 12개, 경은 16개입니다. 올해 2018년 우리나라 예산이 430조 원정도이니, 1경이면 우리나라의 23년 예산이 됩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항하사恒河沙’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인도 갠지스 강의 모래 숫자’입니다. 항하사는 동그라미가 무려 52개입니다. 우리의 상상 밖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옴은 자신이 지금 놀리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전 세계 바다의 모래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움을 4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토로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4절).

옴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성종양이 가득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고, 그 화살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자신의 영혼을 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음식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고, 냄새도 맡기 싫기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자신이 버티는 이유를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설명합니다(10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14-30)

서양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아 매우 아쉬워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14절, 새번역)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밥 한 그릇은 그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물이 흐르는 개울 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중동에는 우기(雨季)에는 시내가 되고, 건기(乾期)에는 마른 땅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우기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친구들은 바짝 마른 건기였습니다.

옴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21-23절).

옴은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흉한 몰골을 보니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겁을 내고 있지? 나는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재산을 떼어서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빼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네.”

이 말의 속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이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좀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함께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약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28-30절).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나를 도와들 주시게. 나는 내가 혀를 막 놀려서 분별없이 떠든 일도 없는 것 같

은데, 나도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으로 평가해서 욥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한,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포장해서 말할지라도 욥에게는 흥기로만 다가옵니다. 엘리바스가 잘 정리해서 말할수록, 또 더 포장을 잘해서 말할수록 욥에게는 비수匕首로 다가오기만 하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쏜신 화살을 맞고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을 사랑하시는 한, 그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욥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모양의 인생지도를 그리든지,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한, 그 지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그리신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온 몸에 악성종양으로 고난을 겪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일주일동안 함께해주

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위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지도만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에 그 과정도 은총과 섭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려 가시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볼 때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곁에 욕과 같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까?
4.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침을 삼킬 시간도

욥기 7:1-21

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
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비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
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
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가 터지는구나 6 나의 날은 벼들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
나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
을 보지 못하리이다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
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9 구름이 사라
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2 내가 바다니이
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
나이다 15 이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

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하소연(1-10)

단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 몸에 악성종양이 뒤덮여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의 근거는 자업자득과 인과응보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선징악만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욥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

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1-6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는 말을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힘든 노동’이라 표현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에 ‘만군(萬軍)’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보다 ‘전쟁’이 더 적절하고도 훨씬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노동에 뛰어든 사람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퇴직하거나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간 병사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대를 나가게 되면, 탈영이 되고, 아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강제적입니다. 또한 노동은 나의 시간을 팔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보다 전쟁터가 훨씬 더 절박합니다. 그만큼 육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짧게 끝나는 것이면 힘들어도 버텨볼 만합니다. 하지만 장기로 계속될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설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로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시행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노동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품꾼은 매일매일 해가 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옴은 해 뜨는 시간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집는 전전반측(轉轉反側)하고 있는데, 그런 옴을 친구들이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옴은 자신의 매일매일이 ‘베틀의 북’같다고 합니다. 베틀의 북은 베를 직조할 때의 틀로서 가로로 굉장히 빨리 지나 갑니다. 옴은 4절에서는 언제 밤이 다 지나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틀의 북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초점이 ‘속도’에 있지 않고, ‘의미’에 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보냈는데, 돌아보니 빨리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그 지난 세월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했던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옴은 자신의 생명이 ‘한날 바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7절). 들판에 서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훑 불고 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 바람’을 개

역한글성경에서는 ‘한 호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인생이 “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다시는 행복(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자신 앞에는 끝없는 불행만이 전개될 것 같고, 앞으로는 험한 꼴만 볼 것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찾으실 때도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은 별로 살고 싶지도 않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하소연(11-21)

욥의 하소연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11-12절).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표현할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사43:2)”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은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자기를 바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존재로, 바다 괴물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여겨, 자기를 감시하느냐고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욥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17-19절).

욥의 이 하소연과 비슷한 표현인데, 정반대의 성경구절이 있습니다.⁵ 시편 기자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너무 엄청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만드셔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반면의 욥의 고백은 “하나님 제게 신경을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놔주십시오. 내가 침을 삼킬 정도의 시간이라도 맘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의 비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걸고, 주님과 함께 걷고 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지도가 찢어지지도, 색이 바래지도, 삭아 없어지지도 않게

⁵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시8:4-5)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이 “내가 무엇이라고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단련하시며, 왜 나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내버려두실 수 없습니까?”라고 하소연해도, 그 모든 과정이 욥으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인생 지도도 찢어지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도 않고, 삭아 없어지지도 않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욥은 자신의 인생이 힘든 노동(전쟁)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와 같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을 삼킬 여유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때의 일(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시작은 미약, 나중은 심히 창대

욥기 8:1-22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11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2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뜰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시가 동산에 뻗으며 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

어갔을지라도 18 그 곳에서 뿔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흠에서 나라라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미약과 창대???(1-7)

오늘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 두 번째 사람인 빌닷이 욥에게
 말한 충고이자 변론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옆에
 서 지켜보며, 속에서 부아가 끓어오른 듯이 보입니다. 빌닷도 엘
 리바스처럼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가치관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
 으로 욥을 공격합니다(1-3절).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시끄럽다. 말
 같이 얇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
 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굽게 한다.’는 말은 상업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상
 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일 때 사용했습니
 다. 빌닷의 말은 “네 죄가 1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네 죄가 1톤이라고 저울을 속여서 벌을 주어 네가 이 일을 당했
 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네가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다고 합니다(4절).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의 말은 정말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6절)는 빌닷의 말은 “네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셔서 네 본래의 목장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본래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빨리 더러운 삶에서 나오고, 부정직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7절)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한 가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시작하는 가게가 작고, 소규모일지라도 나중에는 체인점을 많이 가진 식품회사나 큰 기업이 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현판을 걸어 놓은 이유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오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

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말도 아닙니다. 빌닷의 말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말은 ‘틀렸다’가 전체 욥기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보면 욥의 시작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여리,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역한글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욥보다 더 큰 부자는 임금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시작할 때에 경제적으로는 이미 창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빌닷의 말의 의미는 “너와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딱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죄 때문임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혹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약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지은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된 상태, 모든 가축이 없어졌음은 물론, 자녀들도 다 죽고, 온 몸에 악한 종양이 뒤덮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8-22)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읊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은 반면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 전통을 통해서 읊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빌닷의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어다”라는 8절의 말은, 빌닷이 가진 사고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조상들의 말씀과 지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읊에게 틀림없이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조상들의 말이 맞는 것도 많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의미가 달라진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 번을 짚는 것이 마음에 품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스토킨으로 여겨져 처벌을 받습니다.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에 의존하는 죄인은 이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빌닷은 왕골과 갈대, 거미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⁶ 왕골은 애굽의 강변이나 물의 고여 있는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종이가 영어로 ‘페이퍼_{paper}’인

⁶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뜰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져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 자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1-15절)

데, 파피루스에서 온 말입니다. 왕골과 갈대는 다량의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식물입니다.

빌닷은 욕을 높에 심겨지지 않은 왕골과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는 올리브나무처럼 오래 사는 식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물가가 아닌 마른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내 말라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 삶의 근거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는 고난을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미가 거미줄로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어도 이내 허물어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작은 곤충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당 뒤편에, 숲속에 쳐진 거미줄이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거미무상, 인생무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이렇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식물도 물이 없고, 뿌리가 뽑히면 이내 말라비틀어지고 말듯이, 또 거미줄을 아무리 잘 쳐놓은 것처럼 보여도 이내 다 끊어지고 말듯이, 네가 한 때 잘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재난을 당한 것 자체가 네 삶이 하나님께 불경했던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리주의자와 같은 빌닷의 마무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

라”(20-22절).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은 거두어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장막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옴아! 제발 악인의 길에서 나와서 의인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옴은 세 친구 앞에서 죄인 중의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전의 사도 바울을 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기독교의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평생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고향에서 소일을 하다가 생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전도자로 다녔던 곳들은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가 되었고,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편지로 인해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옴은 친구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해 주심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고통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마음과 다하여 심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목적으로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아는 전통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고, 격려의 도구로, 위로의 통로로 삼게 해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을 본다면, 의미 없는 미사여구를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한 끼의 밥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빌닷은 전통과 자신의 생각으로 욱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3.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4.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빌닷의 말을 오용(誤用)합니다. 이 외에 오용하는 말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5.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것에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욥기 9:1-35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 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지 못하며 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1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йка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20 가령 내가 의로울 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4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위력(1-14)

오늘 본문은 8장의 빌닷의 독설에 대한 욱의 답변입니다. 빌닷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라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전통과

조상들의 말을 빌어서 욱을 난도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욱의 자녀들이 한낱한시에 참변을 당한 것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며, 아버지 욱은 그들의 죄를 알고서도 방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욱의 답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1-4절).

‘이 일’은 빌닷이 말한 8장의 내용입니다. 욱은 빌닷이 말한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에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천 마디의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빌닷과 욱의 말을 반려견들의 대화로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반려견들에게 들었는데, 우리 주인은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잘 듣지 않으면 혼을 낸대. 네가 많이 맞은 것은 틀림없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겠지?” “나도 알아. 우리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고,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고, 먹을 것이 달라진다는 거! 하지만 난 집을 나간 적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 앞에서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 내가

숫자 몇 개 구분할 줄 안다고 수학교수님이신 우리 주인 앞에서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라”(11-14절).

옴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움직이고 계셔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3분 길이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진행자가 농구공 패스 횟수를 묻지 않고,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30명이 그 영상을 보았는데, 고릴라를 본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릴라는 나오지 않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돌렸더니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은 20초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에 고릴라가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의 망막에는 시각적인 영상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맹점^{盲點}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욥이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의 한 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더 더욱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욥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도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욥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되뇌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단, 제 것은 손대지 말아주십시오.”입니다. 우리 속에는 병든 이기심이 있어서, 내 것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임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यो,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라합도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말은, 여리고에 살았던, 정탐꾼을 숨겨주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욥기와 시편, 이사야에 라합이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가리키기도 하고, ‘바다

괴물⁷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위엄(15-24)

욥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하소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17-18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풍으로 치신다고 하는데,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일엽편주^{一葉片舟}일 것입니다. 게다가 셀 수 없는 주먹이 날아와 온 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보다도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신이 왜 그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인과 이유를 알면 버티기가 쉬운데, 알지 못하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유 모름”, 그것이 욥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합니다(22-24절). 욥의 말을 쉽게 바꾸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예기치 않게 재난을 당해 사람들이 죽고, 죄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을 보시

⁷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욥 7:12).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존재이다.

고도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웃고 계시죠? 이 세상에 악인이 판을 치는데, 악인들에게 벌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관의 눈을 가리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이 말씀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함께 심판을 당하고, 죄 없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세상에 악이 판을 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 속뜻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25-35)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혼란과 자신의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욥이 탄식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25-28절).

욥은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게 여겨짐과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로 빨리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당시의 ‘집배원’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모두 인편(人便)으로 편지를 보

냈습니다. 집배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당연히 발이 가장 빠른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매일매일이 그 경주자(집배원)가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 자기에게는 좋은 세월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의 문자적인 뜻은 ‘갈대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갈대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들은 길이는 길고 폭은 좁은 유선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 ‘독수리’는 동물계에서 최고의 시력을 가진 새 중에 하나입니다. 2km 상공에서도 들쥐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서 하강할 때는 최고 시속은 200km에 가까울 정도로 비행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독수리의 하강 속도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시공창에 있는 것 같고, 고통은 여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탄식에서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심이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혹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하십시오.

옴에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으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려가게 하시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의 한 지점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옴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 몸에 악성종양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가 아니라 정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을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옴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옴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소망과 용기가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깊고 높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2. 옅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와 빠른 배, 독수리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과 같이 여겨집니까?
3. 당신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깊이심과 풍성함을 느낀 것은 언제였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욥기 10:1-22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까 8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까 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니이다 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

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 주
 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
 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
 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
 소서 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
 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무슨 까닭으로(1-7)

빌닷의 독설에 대한 욱의 답변이 9장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전통과 조상들의 말을 빌려 언어의 칼로 욱을 난도질
 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욱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1절) 하나님을 향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하
 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2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까닭으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
 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말씀의 의

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감격의 날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무너진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힘든 날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때 긴 한숨이 나옵니다. 욕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육체적인 고통도 그를 힘들게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욕을 괴롭게 한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절하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의한 상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갈급한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7절).

누구라도 주님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고백은 바로 자신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자신은 악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생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벗어나는 그 순간 예외 없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강조하면서 흠없는 삶을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간구하는 욥(8-22)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자신의 운명을 기술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자신을 빚으신 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배려를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8-12절, 새번역)

욥은 하나님만이 지으시기도, 그 지으신 것을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진흙 그릇이 금세라도 깨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환난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굴욕으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

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15절).

욥은 하나님을, 죄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동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무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욥과 같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순종으로 그려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지도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려져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3, 8, 9절)
2. 현재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3. 그 일의 이유를 알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질문(기도)하십니까?
4.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완성해 가야할 지도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욥기 11:1-20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
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5 하나님은 말씀은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
을 여시고 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
셨음을 알라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
보다 넓으니라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11 하나님은 허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니라 12 허명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
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5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
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16 곧 네 환난을 잊
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18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20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시작된 소발의 변론(1-6)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으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 변론의 주제는 의입니다. 옳음입니다. 곧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고, 욥은 자신은 여전히 옳고 의로우며 지금의 고난은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항변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군가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에 의로워집니다. 바로 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믿음의 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2-4절). 소발은 먼저 앞에서 욥이 한 말을 거론하며 ‘너는 너 스스로 자랑하고 정결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욥을 비판하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5-6절). 이어 욥이 말을 하듯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があります. 나라마다 종족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중요하게 대별되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크게 이 두 개의 언어로 나뉘며, 그 언어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적 존재인 사람에게서는 언어를 통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관계가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중 서점에 대화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에 큰 관심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7-9)

그럼에도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말보다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우위에 있으며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 만물과 인간과 언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존재인 사람이 언어 사용을 바르게 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에서 온전한 말을 배우고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고 신실한 말은 영원한 자신의 현실과 평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말씀과 함께 말씀의 길을 가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한 소발의 증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7-9절).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은 오묘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

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를 우리 인생 속에 그려가고 계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10-20)

10절에서 20절은 크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 상관하지 않으시거나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11절).

하나님은 죄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관심하시거나, 방치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함과 불의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답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참된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써대고, 쉽게 동조하고 즐기며, 함부로 사는 악함이 습성이 된 절망의 시대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죄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게는 약속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누구보다 말을 조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삶은 비로소 제 모습을 살며, 인생 지도는 비로소 바르게 그려집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돌아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께 드려진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께 드려진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사는 하루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근본적으로 의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서 나오니까?
2. 인간의 언어보다 우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3. 주님 안에서 나의 언어 사용 습관을 돌아봅시다.
4.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어떤 분이십니까?
5. 그리스도인이 매일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욥기 12:1-25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떨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을 이룰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1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5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7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21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22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23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4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25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도 지혜자(1-12)

오늘 본문 12장에서 14장까지는 좁게는 11장의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고, 넓게는 세 친구 모두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4장까지로 욥과 친구들의 변론 1차전이 끝납니다.

욕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상선벌악(賞善罰惡), 곧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악한 일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만하고, 벌 받을만한 일을 행했음을 이실직고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

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 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1-4절).

욥이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입니다. “너희만”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발만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이라는 말은 참 배타적인 말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는 “당신들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들이란 말입니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는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혹 당신들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지혜가 없을까봐 걱정되지요?”라고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합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내가 비록 지금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한 때 나는 기도의 응답도 받았었고, 내가 당신들보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만큼 지혜자일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동일하게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7-8절).

인간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와 같은 거대한 짐승과 맞서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맹수와 맞서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치타나 가젤과 같은 짐승보다 빠르지도 못합니다. 공중의 새도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은 날 수도 없습니다. 독수리와 매의 시력은 인간의 시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땅에 사는 나무로 하면 그 수명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곳에, ‘젯세마네동산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감람나무올리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산맥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인데, 수령_{樹齡}이 4,7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과 같은 ‘므두셀라_{Methuselah} 나무’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는 ‘모천회기성_{母川回期性} 어류’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되어 태어나지만, 먼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돌아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연어가 일생동안 헤엄치는 거리는 약 40,000km, 서울-부산까지의 100배나 됩니다. 연어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땅에 사는 거대한 짐승들이나 맹수, 공중의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바다의 물고기들 중에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동식

물의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욥이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들의 뛰어남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호소할 때에, “길을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동식물을 들먹여 호소하고 있습니다(9-10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동식물들도 다 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 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며 가슴을 칩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13-25)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16-21절).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12, 13절의 지혜^{σοφία}는 ‘영원한 총명함’이라고 한다면, 16절의 지혜는 ‘일을 이루어내는 총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성경에는 ‘건전한 지혜^{sound wisdom}’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성경에서는 ‘승리^{victory}’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든 완성이 내시는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뛰어난심이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속이는 사람이 속는 사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또 갑이 을을 이기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매일 신문지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사들이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넘보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의 뛰어난 상담자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이었던 사람을 그 용상에서 내려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었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모두 자신이 앉아 있던 왕좌에서 내려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낫사슬에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도 거꾸러뜨릴 수 있으시고, 스스로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연장자의 판단력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며, 귀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힘을 다 빼 버리실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으시면, 그들은 길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을 걸을 때처럼 더듬어 갈 수밖에 없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 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24-25절). 우리는 이미 최고 지도자가 총명함을 잃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 욥이 답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진리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의 지혜를 모두 모으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비교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총 합이 물 한 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대양 바다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큼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총 합계는 주님 앞에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해도, 그것은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견주면 동식물이나 인간이나 유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상선벌악(賞善罰惡)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4. 우리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나를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씩은 물건의 냅아짐 같으며

욥기 13:1-28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 참으로 나는 전
 능자에게 말씀하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
 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8 너희가 하나님의 낮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
 하여 변론하려느냐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
 을 속임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 만일 너희가 몰래 낮을 따를진대 그
 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
 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 내가 어찌하
 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그가 나를 죽
 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
 이 있느니라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
 을 얻을 줄 아노라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

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
 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
 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
 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
 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
 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
 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
 취를 점검하시나이대 28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알맹이가 없는 말(1-12)

오늘 본문은 12-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답변 중 가운데 부분입
 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하는 답변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세 사
 람의 첫 번째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욥은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오
 늘날로 말씀드리면, 최고의 회사라고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
 다. 그것만 해도 전디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날에 7남3녀인 자녀가
 한 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3월 12일자 신문에서, 터
 키 재벌 집안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UAE로 여행

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가용 비행기가 이란 중서부 지역에 추락하여, 타고 있던 부호의 딸과 친구 일곱 명, 승무원 세 명 등 열한 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일면 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곳은 이곳과 수천 km가 떨어져 있지만, 순간 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자녀의 부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얼굴을 맞대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무너짐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성종양이 뒤덮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28절).

창고 속에 언제 두었는지도 모르는 물건을 발견하고 손으로 잡았는데 순식간에 바스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습기가 있는 공간에 옷을 두었다가 잊고서 오랜 세월 후에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읍이 자신이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것만해도 사실 버티기가 힘듭니다. 요즈음 표현을 빌리면, 우울증 위에 우울증이 또 덮치고, 그 위에 또 우울증이 덮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이해해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수용하라 강요하기만 합니다. 세 명이 한 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자신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읍은 이렇게 피력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4-5절).

이 말은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다 돌팔이 의사가 하는 행동과 같으니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7절). 이를 새번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허튼 소리’, ‘알맹이도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낮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10절). 이도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입니다. 거짓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상담이라고 하며 이런 저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욥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리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를 흉내 내며 하는 말처럼 들리고, 허튼 소리를 지껄여대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말을 마치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만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를 대하는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 태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여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곳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해?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와 같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욱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가족을 잃고, 그래서 천국에 있을 가족을 소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족이 조문객에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에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입에 바른 말 수백 마디를 내뱉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면, “나도 ○○를 먼저 보내고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밥을 한동안 먹지 못했어.”라고 해야 합니다.

나를 내버려주세요(13-28)

욕에게 친구들의 말은 위로는커녕 비수처럼 날아와 마음에 상처만 내고 있습니다. 욱은 그것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13절).

“나 좀 내버려 둬. 내 일은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의 욱을 수용해 주지 않고, 자기들 속에서 만든 욱과 같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러는 모습을 강요하면, 인격적으로 서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혼하고서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그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가 그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배우자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 모양이나?”고 말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 있던 욥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이다”(20-21절).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자신의 정당함과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세상에 기뻐 데라고는 아무 데도 없고, 바라볼 곳이 하나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주실 분도,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욥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 일은 첫째는 자신을 치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 요청합니다. 욥의 이러한 요청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24절).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 원수 대 원수의 관계에 있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어렸을 때 철모르고 지은 죄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캐묻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에 차꼬를 채워 자유롭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발바닥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썩고 낡은 물건처럼 쓸데없는 존재와 같고, 상한 의복처럼 무가치한 자가 된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26-28절). 옴의 친구들이 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직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옴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극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썩고 낡아 금방이라도 부서지는 물건 같고, 다시는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옷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옴이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워 내뱉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리셨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이고도 영원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

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출발, 과정, 마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성령과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어설픈 조언을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이나 신념,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을 때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잇댄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의 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 허튼 소리, 알맹이도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에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고마워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3. 욥은 몹시 힘든 자신의 상황이 '썩은 물건'과 같고, '좁 먹은 의복'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4. 썩은 물건과 같고 좁 먹은 의복 같은 인생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기 14:1-22

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5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7 나 무는 희망이 있나니 썩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13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16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

니하시나이까 17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
 이다 18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흠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20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
 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
 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이다

나약한 인생의 고민(1-12)

우리나라 한글성경은 번역이 잘된, 굉장히 우수한 성경입니다. 그
 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성경에는 산문과 운문이 있는데, 운문
 도 산문처럼 배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체의 대표적
 인 시편과 산문체인 창세기나 마태복음이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시를 시로 표현하면, 산문체로 표현하는 것보다 지면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종이를 한 장이라도 덜 사용하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산문체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욥기도 대부분이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 뒤에 나오는 엘리후, 그리고 천상회의에 나오는 하나
 님, 마귀, 천사 등을 등장인물로 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집이 극장이 되고, 욥의 친구들과 욥이 번갈
 아 나와서 자신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
 는 말을 노래로 표현하면, 욥기는 대하사극 오페라가 됩니다.

욥기 3-31장까지, 29장이 욥과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1절).

“인생은 짧고, 걱정으로 가득하다.” 딱 한 줄로 인생을 정리했는데, 정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약간 늘이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90:10)”.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미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날아간 것같이 빨리 지나가 짧게 여겨지고, 그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던 야곱도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47:9).” 야곱은 당시까지 13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살지 않은 것처럼 인생이 짧게 여겨지고, 그 세월은 험악하게 여겨져 걱정이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20여 년 동안 그의 마음은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다 썩어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몇 년을 살았든지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 길었

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도 되지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가, 참 짧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세월 동안 행복했고, 즐거웠던 때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걱정과 한숨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인생의 무거움을 호소하고 있는 읍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읍은 인생을 꽃과 그림자 그리고 품꾼에 비유합니다.⁸ 성경에서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자주 표현합니다. ‘꽃’의 의미는 ‘이내 시듦’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핀 꽃이라도 화병에서 며칠만 지나면 뽑히는 신세입니다. 또한 그림자의 의미도 ‘빨리 지나감’입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벽시계나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져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놔는데, 잠시 후에 보면 그림자는 다른 곳을 그리고 있고, 또한 그림자는 해가 지고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읍은 자신의 인생이 시드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 처럼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해가 지고 그날의 일을 다 마쳐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주인도 없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⁸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기를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2-6절)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품꾼에게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옴은 품꾼이 집에 홀로 있는 것처럼, 자신도 집에서 홀로 평안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옴은 나무는 인간과 달리 찍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옴이 돌아나고 가지가 자라기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 죽은 것 같아도 뿌리에 물기가 닿기만 하면 새로 심은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10-12절).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팔팔한 청년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중동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마르는 땅이 많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아서 강처럼 보이다가고, 건기에는 바짝 마르면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듯이, 이 땅에 있는 인생도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끝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소망을 주소서(13-22)

아무리 팔팔한 사람이나 대장부라도 죽으면 그만이지만, 혹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자기를 불러 주시면 대답하겠다고 합니다(14-15절).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제1차 변론(대화)은 18-22절로 마무리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흠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18-22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산과 바위는 본래 움직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물에 닳고 씻겨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물’이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로 표현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마르고 닳아 없어지니,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몸은 너무 아프고, 영혼은 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말이 유난히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과 고통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때에 우리도 욥과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보다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고, 더욱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의 희망과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영원까지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꽃이나 그림자, 품꾼과 같이 여겨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일도 없고, 인생이 꽃이나 그림자와 같고, 품꾼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가 충분히 계획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내고, 내 능력으로도 내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인생에 이유 없는 또는 이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옅은 사람의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3. 옅은 인생을 이내 시들고 마르는 꽃과 그림자,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 영원한 가치로 승화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욥기 15:1-35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17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

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 이 땅
 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20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 21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
 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22 그가 어두운 데서 나
 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3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25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
 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6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27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
 는 기름이 영기었고 28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29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
 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30 어
 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
 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31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32 그의 날이 이
 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33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4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
 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의 비난(1-16)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뚜

렸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욱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더라”입니다. 빌닷은 전통을 가지고 욱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소발은 가정(假定)을 사실로 단정하고서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입니다.

욱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지를 욱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욱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욱의 모습이 아니라, 욱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지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살았던 지방에서나 나의 집안에서의 경험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일을 확인한 것처럼 꾸민 생각이나, 또는 내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속에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덜 성숙한 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욱기 3장에서 14장까지가 욱과 친구들의 제1차 토론이었다

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21장까지는 제2차 토론입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처음에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1-6절).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헛된 지식’과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헛된 지식’의 문자적인 뜻은 ‘바람의 지식’입니다. “후-”하고 불면, 아주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내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래서 가볍기 짝이 없는 공허한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sirocco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 받을 초토화시키곤 했습니다. 그 피해가 극심해서 백성들은 심한 기근을 겪곤 했습니다. 사람 뱃속에 부는 동풍과 같다는 엘리바스의 말의 의미는 동풍이 농작물에 극심한 해를 끼치듯이, 욥이 하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하여 파괴하는 흉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괴적으로 욥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욥이 죄인이고 악인인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나이와 관록으로 욱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9-10절).

아마 엘리바스는 앞에서 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욱의 죄로 인함임을 넌지시,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때에 엘리바스가 기대했던 것은 욱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욱은 자신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 화가 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절에서 엘리바스가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얼핏,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표면적으로는 욱의 친구들이 아니라 욱의 아버지의 친구나 아버지보다 연장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네 아버지뻘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의 세 친구는 욱보다는 어느 정도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속담을 빌어

서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
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
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히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
겠느냐”(14-16절).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
간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
기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
람이 누가 있으며, 완전무결하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상선벌악하시는 분으로만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
의로우신 분일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
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운명(17-35)

엘리바스는 17-35절에서 자신의 신앙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특히 20-24절에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①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②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잔인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 ③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④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평안한가 하면 재난이 닥쳐 망함) 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절망스러운 처지에서 나올 길이 없음) ⑥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환난이 기다림을 의미) ⑦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⑧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흑암에서 벗어나 도망갈 희망도 없음) ⑨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⑩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입니다.

악인은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이처럼 열 가지나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하며, 그가 지은 죄를 25-26절을 통해 예상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25-26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자기의 힘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교만한 짓을 했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짱 한 번 떠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적인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3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런 삶 속에 재난의 씨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매여 있게 될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규정할 때에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오해의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유한한 존재 이면서도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 볼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내 생각이나 삶의 방식과 같지 않을 때,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돌이켜,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필요한데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어서 당황했던 제자들처럼,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도 은총과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 가운데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상선별약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에, 그것이 주변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폐부 깊이 찔림은,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오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백하건데, 우리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그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4.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정과 일터 등)에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총의 통로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증보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

욥기 16:1-22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
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
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
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7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
다 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
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0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
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 내가 평
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숩뜨리시며 나를 세
위 과녁을 삼으시고 13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
는구나 14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5 내
가 굵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땀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쉼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나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변론 배경

16장에 기록된 욥의 대답은 엘리바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론은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너희’는 욥의 세 친구 전부를 지칭합니다. 16장에 나오는 욥의 말에는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 변론 부분을 읽을 때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보기 어려운 시적이고 고상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 둘째는 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며 그와 장황하게 논쟁하였다는 점, 셋째는 등장인물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법정 재판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욥은 피고인, 욥의 세 친구는 원고인, 그리고 판사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판사는 양측 변론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시종 그들의 변론을 보고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위해 나타

나십니다. 16장은 두 번째 재판에서 원고인 엘리바스의 고소 내용을 듣고 피고인 욥이 자신의 친구들이자 원고의 말이 옳지 않음을 피력하고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견해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은 결코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 향한 탄식의 말이 구구절절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욥기 후반부(38-41장)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욥의 친구들의 견해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원고인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욥에게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욥의 고뇌-재난을 주는 위로자(1-5)

욥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2절). 진정한 위로자는 재난을 주지 않습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재난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닌 말로 받는 재난입니다. 이는 몸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식초를 붓듯이 말로 재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그들로부터 상처받은 심정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헛되며(3절), 말로 자신을 치며(4절), 그리고 내가 너희 입장이었다면 상

대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5절)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탄식_하나님께서 하신 일(6-9)

욥은 친구들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침묵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을 것(6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욥은 자신이 무엇이래도 말을 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더 낫다는 판단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7절).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 대한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말로 이어집니다. 욥은 변론 초기에는 인내 모드에서 시작했다가 변론이 거듭될수록 탄식 모드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신 분이 주님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식물처럼 시들게 하셨고’(8절), 주님께서 ‘자신을 찢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다’(9절)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원래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녀 10명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욥1:21b)라고 말했고, 자신마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 중병이 시작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2:10b)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의 고백들을 취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저주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어난 것임에는 심경의 변화는 없으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식물처럼 시들게 하셨고 자신을 찢으셨고 마치 적대자나 원수가 행할 일을 하신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_예수님의 모형, 욥(10-16)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욥기 독자로서 욥의 탄식을 평가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 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객관화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의 표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무리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고, 자신을 악인과 행악자의 손에 넘기고, 자신을 꺾고 부숴뜨리고, 과녁 삼으시고 화살이 자신을 쏘고 내장을 꿰뚫고 내장이 땅으로 흘러나오기까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욥이 받는 고난은 그가 행한 죄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서는 행악자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무리들에게 모욕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대못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욥의 고난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며 받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탄식이 있었고, 그리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고난_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자(19-22)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해서 받는 경우와 무고히 받는 고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 중 탄식의 말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만 욥처럼 정결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17절)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현재 처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19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누군가가 나를 무고히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고 증보자이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때에도(20절) 나를 중재해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넘기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욥기 1,2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가 했던 언행에 대해서 욥기 마지막장을 보면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욥이 죄와 전혀 무관한 의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도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회개할 존재임을 보여 줍니다. 신약 시대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스스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변에 무고히 나를 조롱하며 소위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있을지라도 22절의 율의 표현대로 언젠가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주님의 귀한 대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욕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앎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고히 비난을 받거나 논쟁에 휘말리더라도 원고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고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원고에게 변론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처지가 형편없고 힘이 많이 들지라도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 옵과 그의 친구들은 각각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 사람과 논쟁할 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쌍방이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답을 직접 들을 수 없기에 결론이나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위로자입니까?
5.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의 찬미 (死의 讚美)

욥기 17:1-16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6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8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9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0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11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3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으매 14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증보자를 찾는 욥(1-5)

욥의 탄식이 계속됩니다. 증보자를 찾고 도움을 요청했던 욥의 마음이 이해됩니다(16:21). 친구들은 욥더러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 지금 욥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1절).

극심한 고난에 직면한 욥은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기에 여기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은 죽음뿐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건디기 힘든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보자를 찾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2-3절). 고난을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토록 믿었던 친구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섭섭함이 욥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소위 친구라는 자들에게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5절).

이 말의 본래 뜻은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 자식의 눈이 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자칫 보증을 잘못 섰다가 잘못되면 자신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결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손해 보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는 사람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 욥의 무죄함에 보증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욥(6-16)

욥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6-9절).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다, 죄없다, 의롭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작 정직하고, 죄없고, 의롭고, 손이 깨끗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원마저 다 사라졌다고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11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죽음이라고 절

규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으매”(13절).

욥의 마지막 희망은 스올, 즉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14-15절).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은 시체를 갹아 먹는 구더기를 어머니라 자매라 부르고 있습니다. 욥이 죽어서 ‘아버지’로 표현된 무덤 구렁이의 자식이 된다는 것과 욥의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이 욥의 어머니와 자매가 된다는 말은 결국 욥이 죽어서 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흙이 되면 모든 게 사라져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16절, 새번역) 욥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은 죽음뿐이라 고백한 후에, 결국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면 자신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으면서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의 교훈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 중, 첫째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재기한 사람,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23:10) 고백했습니다.

둘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고 때가 되면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 나에게 생명 있다는 사실이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통해,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을 통해 욥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욥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주십시오. 세상만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아니라 또한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두눈박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술술 풀려만 가는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계획에서 어긋나 원치 않는 길을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욥의 인생에서

위로를 얻고 욕의 고난을 통해 오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스올(죽음)에 내려가길 원할 정도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죽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3. 원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닌 게 고난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4. 피할 수 없으면 즐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하고 ... 이러하리라

욥기 18:1-21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밟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9 그의 발 뒤꿈치는 덧에 치이고 그의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10 그를 잡을 덧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12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4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16 밀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0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짝짜 놀라리라 21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하니라

오만하게 보이는 욥(1-4)

오늘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2차 토론 중, 엘리바스에 이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 역시 두 번째가 되자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격하게 말합니다(1-4절).

빌닷은 입을 열자 말자,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는 우리말로 하면 “그 입 닥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입 닥치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자기 나름대로는 욥에게 진심을 다해서 충고했는데, 욥은 그 말을 “강아지가 멍멍”하는 것이나,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욥에게 화살을 돌려서 빌닷은 욥을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친구 둘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서 돌을 들더니, 자기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순간 그와 다투었던 친구가 아주 당황해하며 자기 머리를 때렸던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는 말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세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으면,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야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며 저항하는 것은 곧 말로 자기 자신을 찢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5-21)

빌닷은 욥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사라졌고, 자식이 죽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21절에서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최후로 내리시는 벌은 죽음이기며, 욥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5-6절).

악인의 죽음을 ‘등불이 꺼짐’에 비유합니다. 한 때 욥이 자신의 장막(집) 안에서 평평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심지가 다 타서 불이 꺼지고 말듯이, 악인인 욥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덧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덧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

며”(7-10절). 악인의 죽음을 ‘그물과 밧에 걸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31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걸음이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밧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마을에 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밧을 놓곤 했는데, 그 밧에 걸린 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내내 시골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친척 형들이 산 속, 토끼가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올가미에 토끼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밧에 걸린 쥐와 올가미에 걸린 토끼가 어떻게 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빌닷은 악인인 욕의 운명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11-15절을 통해서, 악인의 죽음을 ‘도망자의 붙잡힘’에 비유합니다. 도망을 다니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깜짝깜짝 놀라듯이, 악인에게는 사방에서 몰아친 두려움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짓누르는 바람에 아무런 힘육체의 힘과 물질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意味) 쓰지 못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성한 곳이 없어 죽을병이 사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망의 장자’는 당시에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빌닷은 욕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죽음의 처소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16-20절을 통해, 악인의 죽음을 ‘나무의 뿌리가 마름’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잔인함을 넘어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버림으로, 후에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듯이, 이제 자녀가 없는 욥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7남 3녀를 한 순간에 잃은 아버지 욥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리하니라”(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은 빌닷의 말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욥이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불의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빌닷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빌닷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등불이 꺼짐과 그물과 덫에 걸림, 도망자의 붙잡힘, 나무의 뿌리가 마름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인생을 살았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다가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해 있는 분을 심방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 분의 눈을 바라보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영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옴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믿음의 지도를 그려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빌닷이 입을 향해 퍼붓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그런 오해와 정죄의 말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받게 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하시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임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빌닷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욥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들었던 말 중에 거친 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당신이 말했던 거친 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듣거나 말했을 때에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3.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혹 비난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1-29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0 사면으로 나를 혈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 나

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사실 것이라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낫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1-12)

오늘의 본문은 18장의 빌닷의 공격적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1-2절).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욥을 짓부수는 흥기와 같다고 합니다. 말은 흥기凶器도 되고 이기利器도 되어서,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한 마디가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배려의 한 마디가 인생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주기

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사람들을 세우는 통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심한 말로 학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욥의 말처럼, 욥에게만 허물이 있고, 욥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3-4절).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잘못함과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은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인(自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틀림없이 자기들보다 죄도 많고,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5-6절).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억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18장에서 빌닷이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욥 자신이 그물에 둘러싸인 것이 틀림없어서 변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한편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음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돌려 진을 쳤구나”(8-12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에 넘을 수 없는 담을 세워 두신 것 같고, 짙은 어둠만이 드리워지게 하셔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 수 없고, 재물과 지위를 비롯하여 자신이 누리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여겨져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으로 여기시고 군대를 보내어서 집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자기가 사는 집을 포위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놀릴 수밖에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거나,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욥(13-22)

욥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먼저 친인척들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13-14절). 재산이 그렇게 많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자, 친인척들이 욥을 떠나 관계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탤런트나 배우,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잊혀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린 글에 그것을 비방하는 ‘악플’이 달리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것이 아무런 글이 달리지 않는 ‘무플’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욥은 친지들에게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들과 종들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15-16절). 부유했던 욥은 나그네들이 거리에 노숙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31:32). 그리고 종들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욥은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한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17-19절). 사람이 집밖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도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이룬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겨 집니다. 그러나 비록 밖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각했던 만큼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배우자와 가족들의 격려를 받고, 친한 친구들부터 격려를 받으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욥은 집 밖에서도 버림을 받았는데, 집 안에서도 버림 당해 몹시도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남은 것은 피골상접한 몸뚱이 하나, 잇몸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처참한 처지이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자신을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부활의 소망(23-29)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져, 몹시도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23-24절).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닌 것이 돌에 새겨져 후손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돌의 상징 중에 하나는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말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말이 잊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소망처럼 그가 살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남아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25-26절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5-26절).

이것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부활 신앙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시대나 오늘날과 같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악성종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욥의 이 말은 철필과 납으로 돌에 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이고, 2부가 예수님의 수난과 속죄, 3부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3부의 첫 곡이 ‘내 주는 살아 계시니’인데,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소연과 같은 기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

는 말씀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속자구세주가 살아 계심을 확신했고, 자신의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갑시다. 때로 내가 계획하는 것이 무산되고, 내가 가려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묵묵히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지도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임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의 말은 욥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권면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짓밟는 것과 같은 흥기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앞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이 뿌리 뽑힌 나무 같아 절망하고, 무장한 군인에게 포위를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여겨 지기만 했습니다.

욥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무시 당해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한 가지 또렷한 것은 자신의 대속자(구세주)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욥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든,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진행되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지도를 신묘막측하게, 불가사의하게 그려가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내가 들었던 말 가운데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파괴적인 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격려하고 인생을 세워주려고 하는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잊혀진 상태라고 여겼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잊혀진 것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 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4. 옅은 친구들의 잔인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며,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뵈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5.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악인이 받을 분깃이요

욥기 20:1-29

1 나이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
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
거움도 잠깐이니라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지라도 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
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 그의 아들들
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
에 누우리라 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 아껴서 버
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14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7 그는 강 곧 풀과 영긴 젖이 흐르
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으로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1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3 그가 배를 불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24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늦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25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26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멀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의 짧은 번영(1-11)

욥은 19장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에서 살 것이며,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당시로는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운, 정말 놀라운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소발은 그 고백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욥의 말을 들으며 입을 닫고 있으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고, 욥의 말을

전부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1-3절).

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 중에 나이가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을 뒤에서 ‘꼰대’라 부르곤 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속어로 ‘꼰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은 언제나 옳고, 상대는 그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이 읊에게 꼰대질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로 읊을 빨리 가르쳐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읊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읊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말할 시간이 적어지고 늦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기만 합니다.

소발은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4-5절).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⁹ 악한 사람이 승전가를 부른 것은 잠시였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었다고 합니다. 소발은 읊을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에, 읊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금방 죽게 될 것이라는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계속됩니다(6-8절; 10절).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고,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읊의 생명이 길지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한 개그우먼이

⁹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 아래로”이다.

개그 프로에서 자주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야, 똑바로 해 이것 들어, 그러다가 한 방에 흑 간다.” 소발이 욱에게 하는 말은 개그가 아닙니다. 욱의 생명을 두고 퍼붓는 말입니다.

특히 11절에 욱이 청년같이 젊음이 넘쳐도, 그 젊음도 흠에 눕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욱이 자신의 수명만큼 산 후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너는 우리에게 네가 의롭다고 말하고, 우리도 네가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지라도, 너는 너의 감추어 둔 죄로 인해서 곧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잔인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 욱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압니다. 욱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에게 다시 7남3녀가 태어났고, 가축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와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욱은 결코 한방에 흑 가지 않았습니

악인의 긴 멸망(12-29)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소발은 욱이 먹은 것, 즉 그가 이전에 이루었던 부유함으로 인해서 한 때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착취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집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12-16절;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토

해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절한 적도 없었고, 자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굶긴 일도 없었고, 오히려 고아들을 자기 자식같이 길렀고, 홀로된 여인들을 돌아보았고, 가난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양털을 깎아서 옷을 해 입혔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발의 욥에 대한 생각은 순전히 자기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발은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악인이 음식으로 배를 불리려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려서 그 진노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23절),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낫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라는 말은 ‘여우’를 피했더니 재 너머에 ‘호랑이’가 기다린다는 속담처럼 더 심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24절). 몸에 박힌 화살을 빼냈는데, 그 화살촉이 이미 쓸개까지 박힌 상태였기에, 화살을 빼내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25절). ‘큰 어둠’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하나님}이 피우신 불’은 심판을 상징하며, 이 심판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합니다(26절). 또 악인의 범죄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 하늘이 악인을 기소하고, 땅이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27절). 홍수가 나면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홍수를 이루어 악인들의 재산이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감이 악인들의 배당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산이라고 합니다(28-29절).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소발의 말도 참 무자비합니다. 욥을 향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소발이 계속해서 ‘악인’, ‘악인’, ‘악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욥’, ‘욥’, ‘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발의 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욥을 정죄하고, 해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기 21장은 본문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1장으로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마지막 3차 변론입니다. 그런데 3차 변론에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만 나오고 소발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 욥을 악인이라 규정하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으로 기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발의 마지막 모습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까지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소망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지만, 이 첫날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삶으로 그려감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구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소발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고통을 정죄하고 온갖 악담을 퍼붓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라옵나니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소발의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삶과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리는 삶을 살아냄으로,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은총의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또 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3. 나는 인생 마지막에 어떤 말들을 읊기고 싶으십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리며, 바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욥기 21:1-34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3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4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5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6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19 하나님은 그의 죄악

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 그의 그릇에는 젓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26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라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1-16)

어떤 내용에 대해서 100%가 맞거나 100%가 틀린 것이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50%는 맞고, 50%는 틀릴 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는 맞는 말이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틀렸던 것이 다른

상황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말의 근거는 언제나 ‘인과응보’였습니다. 즉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겪는 것은 그만큼 욥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나듯이, 욥이 재앙이라는 콩을 다량으로 심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팥을 엄청나게 심었기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재앙이라는 콩을 거두었고, 온몸에 악성종양이 뒤덮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팥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없지만(갈6:7),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기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오랜 시간 주인과 한 집에서 살아도 주인이 행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려견과 반려묘가 주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덜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이나 반려묘와 인간은 피조물임도 동일하고, 유한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소발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절).

우리말로는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이 문장은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명령문입니다. ‘자세히 들으라’의 문자적인 뜻은 ‘들으라 들으라’입니다. 히브리말은 강조할 때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곤 합니다. 2절은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소. 나를 위로해 주고 싶다면 그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3절). 이 문장도 “내가 말하는 동안 참아주소.”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좀 참아 주소, 나 말 좀 하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끝난 후에 하시오.”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할 기회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도 “나를 보시오. 그리고 놀라시오.”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나를 보면 놀라실 것이요. 아마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요.”의 의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욥을 주목하지 않고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욥은 “내 말을 들어주소.,” “나로 말하게 해

주시오.”, “나를 봐 주시오.”라고 말하며 소발이 했던 말에 대해 차례대로 조목조목 변론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자랑이 잠시라며, 악인은 일찍 죽는다고 했는데, 읍이 보니 악인이 일찍 죽기는커녕, 자녀를 낳고서도 잘 살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손녀들이 자라는 것도 다 보고, 가정에 아무런 재난도 없이 평안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일도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혹 가축들이라도 일찍 죽는가 해서 보니, 수소는 새끼를 배게 하고, 암소는 유산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 혹 집 밖에 내 놓은 어린 자녀들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는가 해서 보니, 넘어져서 코피 한 번 나는 일이 없고, 밤나무에 떨어지는 밤에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일도 없이 잘 놀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는 고통을 받겠지 하고 지켜보니,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고 말하고, 기도는 해 봐야 소용도 없고, 자신들의 성공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읍은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17-26)

소발은 악인에게는 재난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읍이 보기에 악인에게 재난이 밀려들기는커녕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본 일이 없었고, 재난이 닥친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진노 하셔서 악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이 검불이나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영양이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고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요즘 유머로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을 앓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결국은 다 죽더라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헛됨(27-34)

소발은 악인은 화살에 맞아도 쓸개까지 꽃혀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했는데, 욥이 보기에는 악인이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죽어도 무덤지기가 있을 정도의 좋은 무덤에 매장되며, 조문객이 끝도 없이 조문하며, 골짜기에 있는 흙으로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34절).

‘헛되이 위로한다’를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공기의 진동과 같다’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전부 ‘혹-’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거짓말처럼 여겨지지만 한다고 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재난을 당하다가 죽을 때는 일찍, 그것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바라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도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쓴 기자도 욥과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음, 재앙도 없음 등을 보고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증거합니다(시73:17).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을 직면하고서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도,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때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자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들이 호의호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 앞에 준엄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방송과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이나 시편 기자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과 과정과 종착점은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 분량만큼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삶으로 그리는 인생의 지도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삶을 보는 것보다 악인의 형통함,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삶의 불공평함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르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불공평함을 당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기에 더욱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소발의 인과응보를 말하고, 욕은 그렇지 않고 악인의 호의호식(好衣好食)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3. 악인의 형통함과 세상살이의 불공평함을 느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4.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엘리바스의 대답

읍기 22:1-30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나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 뿔뿔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닐실 뿐이라 하는구나 15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떠나라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20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정죄(1-20)

욥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탄식에서 시작된 친구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발언은 점점 정죄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욥에게서 죄의 고백을 받아내려 했던 친구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비난하는 데 열중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인간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욥에게 닥친 재앙은 욥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1-5절). 이어진 6-9절에서는 그의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을 나열하면서 이런 여러 죄들이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들은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죄,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죄, 권력으로 이익과 편리를 취한 죄,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죄 등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궁합니다(12-14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뻑뻑한 구름으로 가려져 하늘에 계실 뿐 지상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판단이지 욥은 실제로 7:17-20에서 하나님을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15-17절을 통해 욥이 물로 멸망당한 악인의 옛 길로 가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18-20절에서 악인은 잠시 잘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며 욥의 불행도 악인의 망함과 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바스의 해결책(21-30)

욥을 죄인으로 규정한 엘리바스는 또한 욥의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합니다(21-24절). 회개입니다(21, 23절). 회개하면 “지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 특히 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의 보화가 되시고(25절),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게 될 것이고(26절), 기도가 응답되고(27절), 인생길에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말합니다(28절). 결국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30절)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용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다보니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용에 대한 충고도 전혀 무익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용에 대한 정죄와 그의 해결책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엘리바스의 용에 대한 정죄와 판단은 용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오류이고 정죄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은 친구들의 용에 대한 평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옳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주셨습니다. 용을 “내 중 용”이라 네 번(7, 8절)이나 호칭하시며 그를 변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고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용을 용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무자비하게 정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는 불완전하고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알량한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손쉽게 규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언급한 부분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 4:3-4).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 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부름 받은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만 실망스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 인생을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내 자신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나를 위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근시안적, 내 중심적 판단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확대하거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옳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옳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 옳을 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옳은 이어지는 23-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이 평가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커다란 눈동자 앞에서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자라 불러도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라 부르시면 그는 참된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과 명예를 얻게 되어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는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면(벧전2:9)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사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정죄를 유보하고 이제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특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인 나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떠밀려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

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엘리바스의 욕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 오류가 있었듯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의 기준과 판단에 실수와 잘못이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 바울이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욥기 23:1-17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
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
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
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보
을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
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
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엘리바스가 욥을 다그쳤습니다(22장). 끈질기게도 욥을 공격합니다. “욥아, 지금의 시련은 네 죄가 원인이란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과 화해해야 해! 욥아, 너는 참 교만하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23장입니다.

욥의 탄식(1-17)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그 바른 소리, 그 옳은 지적, 그 신앙적 당위, 당시의 종교적 전통의 언급에 지쳤습니다. 아니 질렸다고 해야 더 옳은 표현입니다. 대신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원통함을 쏟아냅니다. 무죄한 자의 탄원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1-2절, 새번역) 욥은 ‘오늘도’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입니다. 어제처럼, 또 다시, 어제의 탄식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절한 욥의 삶의 자리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의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 파산, 자식을 잃음, 자신의 질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욥의 탄식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

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3-4절, 새번역) 욥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속 시원하게 아뢰고 싶어합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변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은 무죄, 욥은 죄없어!”라고 선언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단 한 번이라도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5-7절, 새번역)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뵈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뵈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뵈 수가 없구나.”(8-9절, 새번역) 욥의 탄식은 아무리 반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그것이 무척 괴롭습니다.

보통 10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면 내가 순금처럼 변할 것이라며 지금의 힘겨움은 단련의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저 욥의 탄식이요 한

숨일 뿐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밭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공동번역 성경의 해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알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정리하면, 10절은 다음과 같은 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걸음을 잘 알잖아요. 저를 시험해보고 살살이 심문해주세요. 저를 털고 또 털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게 흠이 없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 좀 해주세요. 저의 순금처럼 깨끗함을 선고해주세요.” 욱의 절규에 가까운 탄원이요 탄식입니다.

그 탄식은 다음 구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 밭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 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11절, 새번역) 다시 말해, ‘저는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만 걸어갔잖아요.’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건만!”(12절, 새번역) 이는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건가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한번만 속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욱의 탄식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욱은 절

망합니다. 그리고 쓰디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워 떨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 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닙니다.”(13-17절, 새번역) ‘그래, 지금 나의 이 처절한 상황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정한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지금 욥의 아픔은 자신이 당한 짙은 어둠의 상황과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무서워 떨며 두려운 이유는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픔은 하나님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자식을 살려달라. 재물을 찾아달라.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욥의 몸부림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욥의 탄식의 제목은, 욥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저의 무죄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이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숨쉬기가 힘겹지만, 그래도 견뎌볼게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제게 있어요. 이 질문에

한 마디만 답해주세요. 하나님, 왜요? 왜 이 상황을 저에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지 마시고 한 마디만 해주세요.”

욥의 고백

욥의 질문은, 그리고 욥의 싸움은 ‘나는 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 질문을 붙들고 처절하고 절박한 길을 외롭게 걷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길을, 답이 없는 그 길을, 숨이 없는 고단한 그 길을,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신음을 내뿜으며, 쓰린 걸음을 걷습니다. 욥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걸음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절망의 길 끝에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욥 42:5, 새번역) 욥은 먼 길을 걷고 걸으며, 주님을 뵈어갑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지난한, 잔인한, 질퍽한 인생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셨군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뵈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욥기서가 오늘의 삶의 뭇을 고단하게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는 용기요

위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분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삶은 결코 헛짓의 삶이 아니요, 매일 생명의 지도로 나아가고 있는 부활생명의 삶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욱의 탄식과 신음이 더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절히 알아가고 뵈어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오늘 본문의 욱의 탄식과 신음이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3. 오늘 본문의 욱과 오늘의 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시나니

욥기 24:1-25

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때를 빼앗아 기르며 3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10 그들이 옷이 없어 별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르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앞이나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1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22 그러나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라

악인의 횡포(1-17)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의 지금의 상황은 그가 죄를 범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 속담으로 요약하면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23:10-12).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테스트해 오셨지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99.9%의 금과 같이, 항상 내 삶에도 다른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걸었기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생활이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은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품습니다(23:6). 하나님은 자신을 그저 억누르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 분량만큼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비록 지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직은 같길기 멀지만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까지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입니다. 즉 믿음에는 점프가 없습니다. 매일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이 자신의 일도 그렇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횡포가 소개되는데, 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2-3절). 성경에서 ‘고아’, ‘과부’, ‘객’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도 하나

남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몰아내면, 약자들은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4절).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여서 그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사 시대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미디안의 착취가 극심했습니다. 그 착취가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 속에 있는 동굴이나 바위 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에는 이방인 군대의 착취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빈 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려고 해도 덮어줄 이불 조각 하나 없다고 합니다. 산에서 비를 만나면, 비를 피할 방편이라고는 바위 밑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9-11절).

아버지가 없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빗 대신에 그 아이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 외출복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불 겸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옷도 입지 못하고 벗고서 다니고, 일을

해도 굶주림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모기 다리에서 피 뺀다.’와 ‘참새 앞정강이를 굶어먹는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읊은 탄식합니다.

악인들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들은 동틀 무렵, 가장 곤하게 잠들어 있을 때에,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궁핍한 사람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죽입니다(14절). 또 날이 어두워지면, 자신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알지 못할 것이고, 가면을 쓰고, 변장하면 완전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5절).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보면 도적들이 대문에 표시를 해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에 도적들은 그와 같이 낮에 도둑질 할 대문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밤에 담을 넘곤 했습니다. 그들은 신변보호를 위해서 낮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어둠과 같이 여기고, 어둠을 빛처럼 여기는 전적인 어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쳐도(16-17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읊은 하소연합니다.

악인의 심판(18-25)

18-25절에는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물(홍수)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악한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입니다. 그

리고 그들의 밭이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포도원에 갈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이내 녹아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말듯이,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18-19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꺾이고 마는 것은 마치 곡식이 어느 순간에 잘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23-25절). 악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특히 한 밤중에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이 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남자 무당^{박수}과 신접한 사람^여자 무당을 다 쫓아내는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결국은 밤에 언덕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서 죽었지만, 역대상 10장에는 사

을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어두움이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때가 밤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 역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인해서 결국 그는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어두움이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더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어두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다 밝혀지는 것을 매일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이겠습니까?

어두움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죽음의 어두움을 뚫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본능과 욕망의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찢어지지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삭아 없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호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됨에 따라, 과거에 행했던 일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풀리지 않고 영켜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오늘날에는 악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를 합니까?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3.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도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나의 삶과 믿음의 가장 어두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셨습니까?
5. 죽음의 어두움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본능과 욕망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편일 뿐이요

욥기 25:1-26:14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26: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어져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 물을 뻘뻘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

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인간의 하찮음(25장)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고, 26장은 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26장을 끝으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불과 6절로 이루어진 25장이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할 말이 더 이상 없었거나, 더 말해봐야 욥이 듣지 않을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끝까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과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간과 비교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25:2-3). 주권은 ‘다스림’을 뜻하고, 위엄은 ‘놀람, 두려움’을 뜻합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군사력 1-3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 세 나라의 합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이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탱크나 미사일, 전투기가 아니라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와 같은 것들로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태양만 해도 그런데, 허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빌닷의 말은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기에, 그 분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이 자신이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보름달이 뜨거나 아주 밝은 별이 빛을 비추어 주위가 아무리 밝아도 햇빛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처럼, 인간은 구더기와 다를 바가 없고, 벌레와 동격이라고 합니다(4-6절).

하나님의 깊이심과 높이심(26장)

빌닷의 공격적인 말에 대해 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26:1-2). 반어법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데 잠만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부모님이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빌닷,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도와주는 것 같고, 내 팔을 잡고서 나를 세워주는 것 같지?”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입니다.

욥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3-4절). 역시 반어법입니다. 욥은 빌닷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지식’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되문고 있습니다. 나아가 욥은 그러한 빌닷의 발언이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인지를 되물음으로 말문을 닫게 해 버렸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했지만, 욥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5-8절).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높은 곳’과 ‘광명’ 즉 하늘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넓이가 ‘물 밑’과 ‘스올’에서부터 ‘허공’, 즉 광활한 우주에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으심과 넓으심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은 물론 ‘바다’와 ‘하늘’에도 펼쳐져 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특히 7절의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을 허공우주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지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표현을 욥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우주의 광활함과 ‘천동설(天動說)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돈다’이 아니라 ‘지동설(地動說)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돈다’입니다. 지동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6세기에 와서야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비롯

한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 때보다 3,500년 전에 율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합니다(10절). 즉 비록 자신의 삶의 빛이 사라져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끝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율은 이 칠혹 같은 자신의 어둠을 걷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은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지축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하늘의 기둥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라합’과 ‘뱀’도 물리치시고, 하늘도 맑게 개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율의 말을 요약하면, “여보게 빌닷,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네. 하나님의 행하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깊고 높으심, 지하세계에서 우주까지, 이 땅을 우주에 매어다심과 만물을 다스림까지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단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의 우렛소리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속삭임 정도라고 합니다(14절). 즉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대양 바다 전체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물 한 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합한 것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께 들은 소리는 송이버섯 크기의 산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13:12).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게만 보이는 구리거울로 얼음조각을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때에는 빙산보다도 더 큰 주님을 뵈게 될 것이고, 지금은 주님을 아는 것이 미미하기 짝이 없지만, 그 때에는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우리 인간의 하찮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했고, 욥은 빌닷이 말한 것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인간에 대해 말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25:6). 이 말씀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사41:14).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버리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난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4-5).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라면 우리는 결코 ‘구더기’나 ‘벌레’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나 모순을 느끼지 않고 둘 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둘 사이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더기’와 ‘벌레’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의 삶이 비록 벌레와 같이 미천하게 여겨질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또 반대로 평평한 길을 평안 가운데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어지지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삭아 없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와 같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인 것은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존재’까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을 때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리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지도와 색이 바래지 않는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인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3.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더기나 벌레가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기 27:1-23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11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고 13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14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5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18 그가 지은 집은 좁은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20 두려움이 물 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맞아갈 것이며 21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22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3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의 온전한 몸부림(1-12)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들의 치열한 변론은 26장으로 막을 내리고,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27장에서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했음에 대한 몸부림과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2b절)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졌을지라도, 또 10명의 자식을 하루에 가슴 속에 묻어야 하는 놀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온 몸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인해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신 하나님!”이나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 없으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마지막 숨을 내어 쉬지 않았고, 하나님

께서 붙여넣어주신 숨결이 코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3절). 즉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고, 자신의 몰골이 상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 세월동안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밝힙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4-6절).

이 세 절에 ‘아니하다’가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말하기 위해서 “결코”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입니다.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법정에서 치우친 발언을 하거나 악한 발언, 거짓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묘한 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흘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상선별약’을 동의할 수 없고,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와 같은 속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지 않고서도 연기가 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양심을 돌아보아도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나는 내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

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애를 비롯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여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으로 말씀하셨는데, 욥은 끝까지 이런 삶을 지켜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던짐으로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8-10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큰 이익을 얻었다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지금 공간을 헐고 더 큰 공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환난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질곡과 형극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은 손을 내밀 존재가 없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존재가 없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 분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도 없고 부모의 역할을 해줄 사람도 없는 아이는 스스로 해쳐가야 합니다. 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11-12절). ‘숨씨’의 문자적인 의미는 ‘손’입니다. 손은 곧 ‘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을 빌리다”는 관용어가 곧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에도, 친구들은 아무런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보며, 그 시각으로만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된 것을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필귀정(13-23절)

13-23절은 악한 사람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두괄식(頭括式)으로 앞부분 13절에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

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반드시 있고, 포악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벌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더기로 평가를 받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평가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이제 악한 사람이 받게 될 결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언급됩니다(14-23절) 악한 사람의 후손은 아무리 번성하여 많디할지라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부르게 먹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즉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다닐 것이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병사할 것인데, 남편들은 전쟁에서 죽고, 자식은 굶어서 죽거나, 돌림병으로 죽을지라도 살아남은 엄마(과부)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14-15절). 또한 악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옷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의로운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16-17절). 악한 사람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고, 또 밭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움막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틀림없이 부자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알거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18-19절). 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물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두려움이 폭풍태풍처럼 몰려오고, 두려움이 동풍건조하고 더운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몰고 와 밭을 초토화시킨다처럼 불어 닥쳐 죽음에 이르게 한

다고 합니다(20-21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잘 마무리가 되는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박수치며 비웃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죽었다!”입니다(22-23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반복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준들, ‘심은 대로 거둔다’, ‘옛 말에 틀린 것 없다더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라’, ‘아니 뎨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다더라’ 등등 다양한 말로 욥을 수도 없이 난도질하려고 했지만, 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욥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순전함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믿는 것입니다. 욥이 악인이 잘 되는 것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흐름이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출발은 하나님은 평가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

에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어지지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삭아 없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삶의 마디마디에 새겨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전통 등으로 욱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과응보만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상선벌악만 하시는 분으로 욱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욱이 친구들의 그런 언어적인 폭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욱이 스스로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오해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을 때에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과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 악인이 활개 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에 현상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필귀정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지도와 색이 바래지 않는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옅은 친구들의 다양한 언어적인 공격-인과응보, 상선벌악(권선징악)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와 왜곡의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3. 세상에는 부조리(악인이 호의호식하고, 선인이 고난당하는 것)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욥기 28:1-28

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 그 길은 술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20 그

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23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27 그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1-22)

로마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에서 대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에 대해 잘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부터, 또는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에베소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

나님의 계획부터, 또는 하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두 권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구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땅에서의 내용, 즉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 28장은 인간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위에서 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함으로,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와 그 유한함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1-22절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캐내어 정련하는 제련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철도 캐내고, 구리도 캐냅니다. 그런 광물질이 땅 속 깊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캐내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캐냅니다. 또한 탄광이 어둡다고 해서 캐내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장치가 된 모자를 쓰고 들어가거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 채굴을 합니다. 광물질을 캐내는 곳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가고, 채굴하는 곳이 경사가 가팔라서 채굴한 것을 담을 카트를 가져가지 못할 때는, 줄을 매달아 내려가서 광부가 직접 채굴한 것을 갖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다른 피조물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1-4절).

땅에서는 파, 양파, 상추나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의 식물이 자랍니다. 하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다는 것을 동물들은 몰라도 인간은 압니다.

인간은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인간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보다 5-10배정도 시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솔개나 매,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인간보다 몇 배나 시력이 좋습니다. 맹금류는 2,000m의 하늘에서 들판에 기어다니는 쥐가 아주 또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솔개와 매가 눈이 좋아도, 사자와 같은 맹수가 온 초원을 헤집고 다녀도 바위에 사파이어가 섞여 있고, 돌가루 속에 사금(砂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압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큰 바위를 깨고, 산을 다 뒤집어서라도 산 속 깊이 감춰진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 외에는 그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을 평지를 만들어 그 속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찾아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5-11절).

땅 속 깊은 곳, 그곳이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감추어 있는 금, 은,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은 인간이 찾아내어 캐냅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명철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인간이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12-13절). 이 지혜와 명철은 인간이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순금을 주고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오빌’은 금이 나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생산된 금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수정으로 살 수 없고, 산호로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15-18절).

오래전 TV드라마 <가을동화>에서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오늘 본문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혜와 명철? 웃기지 마. 이제 은으로 사겠어. 은으로 사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될까?” 지혜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23-28)

도대체 그 지혜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누가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존재이며,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20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23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28절).

지혜와 명철이 머무는 곳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 속에 매장된 금, 은, 사파이어 등 각종 보석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깊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파내어서 제련합니다. 동물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금, 은, 사파이어 등을 땅 속에서 파내어서 제련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찾아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자기 주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아무리 값비싼 보석으로 비용을 치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본다면, 내 삶과 세상이 틀림없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명철’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청산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과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잃었고, 자신의 몸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매일을 고통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와서는 끊임없이 공격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변론으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그에게 ‘지혜’라는 선물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도 온전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극한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수용하기보다, 세상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떠나야 할 악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의 시선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때에 우리는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하게 하

시는 인생지도는 찢어지지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색이 바래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인 감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들의 용맹함이 인간을 압도해도, 그것들의 시력이 인간보다 몇 배가 더 좋아도, 그것들은 인간들이 하는 여러 금은보석을 캐내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인인 인간도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봄으로,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김으로,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자연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악에서 떠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명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명철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던 때

욥기 29:1-25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19

내 뿌리는 물로 뺏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1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
 에게 스며들었음이라 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
 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
 하여 주고 으뎠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보다 같았
 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보다 같았느니라

회복에 대한 욕의 소망(1-4)

오늘 본문에 욕은 지난날 자신이 형통할 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날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1-4절).

욕은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신 것 같고 빛줄기 하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욕은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욥의 회상(5-25)

욥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옛날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은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젓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6절). 욥에게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젓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고 올리브 나무 열매가 풍성하여 그 기름들은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 찼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의 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현재 욥의 재산은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을 짚그릇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졌습니다.

둘째, 욥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7-10절). 당시 지역 유지들이 주로 머물던 성문 자리에 욥이 있었다는 것은 욥의 사회적 지위를 알려줍니다. 또한 힘 좀 쓴다고 거들먹거리는 젊은이들은 욥을 보면 길을 양보하였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욥을 보면 일어나 존경을 표했으며 유명한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할 정도로 욥은 그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

다. 그러나 현재 욥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저주하고 공격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중심에서 떨어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11-15절).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되어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내었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혼자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마치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수로와 같이 메마른 곳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눈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경제적 약자가 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욥의 빈곤을 채워주거나 욥의 가려운 피부를 위해 기름을 바르거나 치료해 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넷째, 욥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16-17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통은 모르는 체 하기 쉬우나 욥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인권변호사가 되어 주었으며 불의한 자가 힘으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경찰관처럼 그를 벌하고 빼앗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세 친구에게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누구도 욥의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약자의 편에서 스스로를 변론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욥은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21-22절). 욥은 지혜자와 위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누구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욥을 위로해주거나 건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세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이상 우리는 욥의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봄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목련화의 꽃잎이 떨어진 자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욥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현재 욥의 외면적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꽃잎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언젠가 떨어질 수 있는 꽃잎임을 기억하고 먼저 떨어진 꽃잎들을 향해 정죄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산맥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지면 서글퍼 보입니다. 봄철 꽃잎들이 비와 바람에 다 떨어지면 모두들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꽃이 저야 그 자리에 열매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건강의 꽃잎이 떨어지고 물질의 꽃잎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꽃잎이 떨어지고 믿었던 꽃잎들이 하나씩 떨어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욕이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며 아쉬워하지만 고난을 당한 욕의 고백들을 보면 점점 중보자 예수님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기 후반에 회복된 그의 삶의 모습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욕의 내면은 더 단단한 소망의 열매들로 알차게 채워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셋째,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욕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누구 하나 욕의 곁에서 돕는 자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욕이라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러야 합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어 여겨 이 자리에 심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떨어진 꽃잎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꽃잎이 진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도 소망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꽃잎이 진 자리에 부활의 열매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조심스레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영원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선포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우리 모두 떨어진 꽃잎의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재의 상실감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떨어진 꽃잎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떨어진 꽃잎을 열매로 채우시는 하

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소망으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걸어가는 길을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독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떨어진 꽃잎보다 열매를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욕기 1, 2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의 삶에 떨어진 꽃잎들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2.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떨어졌던 꽃잎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채우신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3.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던 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4.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그 꽃잎이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해 봅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욥기 30:1-31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
으랴 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
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5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
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1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
레를 벗었음이니라 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뒧을 놓으
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
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
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
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6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 밤이 되면 내 뼈가 쭈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
 구나 18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
 를 휘어잡으시는구나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
 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
 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
 나이다 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25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30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
 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31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읍을 비웃는 자들과 그로 인해 마음이 늘어져 버린 읍(1-15)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구분 짓고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출신 가문이나 지역, 혈연적 관계를 통해 사람의 신분
 을 나누었고, 왕족이나 귀족, 평민이나 노예 등의 명확한 구분선
 을 두어 사회를 지탱해왔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이러한 눈

에 보이는 신분들이 많이 사라져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신분들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지내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귄 때에도 친구들의 조건에 따라 친해져야 할 친구들과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될 친구들이 존재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스펙에 따라 만나도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는 개인을 넘어 국가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할 때 피지배국은 많은 것을 빼앗겨야 했고, 여전히 세계 각국은 종교나 혈통, 규모에 따라 우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신분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력, 직업으로 사람을 구분 지으며, 자신보다 아래의 신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옴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29장에서 옴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으로 대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선의를 베풀은 물론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옴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옴에게 무수한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옴이 처한 상황이 변하자 사냥개가 짐승에게 달려들듯 옴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옴을 물어뜯는 사람들은 개와도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1절), 인간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5, 8절), 야생의 동물처럼 다니는 거리의 사

람들(3-4절, 6-7절)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가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욥의 상황을 보며, 욥을 자신들보다 못한 신분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았지만, 그들은 욥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에 욥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아래 계층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악한 습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11절).

활의 생명력은 시위의 탄력으로 화살을 목표지에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활시위가 늘어졌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욥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자, 욥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스스로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인생이 이처럼 비참해진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 그는 가증한 사람이며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탄식과 절망 속에 이어지는 욥의 기도(16-31)

16절부터 욥의 시선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마음을 주었으나 자신의 마음은 짓밟혀버린 상황에서 욥의 마음과 속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쭈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16-17절). 욥은 과거 부유했던 시절도,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도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허무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지닌 본연의 유한함과 미천함의 이유를 알고 싶은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20절).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을 잔혹하게 대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진흙이나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욥은 마지막 진액을 짜내듯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계 치십니까?”(24절, 새번역)

자신의 부르짖음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겹게 뱉어내는 신음소리도 이리나 타조의 소리처럼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린 욥.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고난 앞에 욥은 자신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관점

으로는 결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과거에 행했던 도덕적 선행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옹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지고 가야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뺨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듯, 십자가 위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듯, 우리 역시 지금 고난의 자리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이 잉태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상처받지 않고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손에 쥘 것은 없고, 마음은 너털너털 거리며, 누구도 지친 인생을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마지막 진액을 짜내듯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이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이 찢어지기에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욱을 향해 비웃으며 비방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2. 욱을 조롱하고 놀리는 소리를 들으며 욱이 느끼는 감정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감정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니까?
3. 욱은 지금의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4. 절망의 상황에서도 욱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욥기 31:1-40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9 만일 내
 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하였다면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도
 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
 렸다면 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
 러지기를 바라노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
 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재물의 풍
 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
 었다면 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
 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
 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
 노라 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
 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 내가 언
 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
 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
 량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8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발이랑

이 함께 울었다면 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윤리적인 정결(1-12)

31장은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세 친구들과의 긴 대화(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29-31장이 한 호흡인데,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형통했을 때를 회상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12절은 윤리적으로, 13-23절은 사회적으로, 24-40절은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인 40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이후에 욥의 말은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장은 법정용어로 하면, ‘최후변론’과도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듯이, 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수가 최후변론을 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최대한 감성을 자아내서 말하여, 가능한 한 가벼운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1-2절).

욥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약속베리트’은 ‘언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같은 의미인데,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둘로 쪼개 놓고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 갑니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어진 짐승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어도 좋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약속을 자기 눈과 했다고 말합니다.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늘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어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뱀사탄의 유혹을 받고서는 달라졌습니다. 유혹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먹음직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라면, 보암직은 보는 것에 관한 욕망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과 약속(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겠노

라고 자기 자신에게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결단과 자신의 가정을 동시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열 명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성종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 욥에게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은 두 배가 되었고, 그에게 처음과 동일하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바뀌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복권 같은 것이 당첨되어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 자기 배우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여러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있었을 때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자기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정결함과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은 가정을 팽개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는 환난과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4절).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

하나 세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여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의 크고 작은 일에 함께하심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켜봐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함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욥은 5, 7, 9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자기 스스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5; 7; 9절).

5절의 ‘동행하고’, 7절의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9절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은 모두 ‘발 또는 걸음’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출발은 자기 ‘발’에서 시작합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정결(13-23)

13-23절은 욥이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

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13절)

고대에 종들은 ‘인간’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기에 억압하고 혹사하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옴은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15절).

옴은 자신과 종들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특히 옴은 자신과 종을 ‘우리’라고 하여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16절).

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절하지 않았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체 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과 ‘과부의 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옴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옴이 어떠하였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18절). 옴이 ‘젊었을 때부터’와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는 것으로 옴의 부모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옴은 자신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거의 선천적인 것에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19-20절).

웁은 음식만이 아니라 의복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고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은 단지 의복만이 아니라 이불 겸용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곳에서 따뜻한 옷이 없으면 동사^{凍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웁이 자신은 양털^{기죽외투}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정결(24-40)

24-40절은 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으로 기뻐하였다면”(24-25절). 웁은 “나는 순금만 믿어. 세상에 믿을 것이 재물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재산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웁은 소유물을 목적으로 삼거나, 재산은 하나님 대용품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26-28절). 웁은 일월성신^{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들을 신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을 속이는 행위, 배우자를 속이는 것은 곧 부정한 삶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을 속여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35절). 이 말씀은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최후 판결을 기다리며 드리는 ‘소명요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표현했으니,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31장의 욥의 마지막 말은 욥 자신은 완전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살폈는데, 욥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역순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지으심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방종에 내팽개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나와 함께 하게 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세속적인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욕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욕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욕망의 삶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옘은 윤리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윤리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3. 옘은 고아와 과부를 비롯하여 헐벗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웃을 위한 공간(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옘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일월성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 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없습니까?
5.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니

욥기 32:1-22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12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4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더라 16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

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9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의 등장(1-5)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42장으로 된 읍기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1-2장인데, 서론과 같습니다.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읍과 그의 가정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둘째, 3-31장인데, 읍과 읍의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3번에 걸친 긴 변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셋째, 32-37장인데, 읍과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변론을 듣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넷째, 38-42장으로, 하나님과 읍의 대화로,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에 대해서와 읍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은 엘리후의 변론인데, 엘리후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서 4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32-33장이고, 두 번째가 34장, 세 번째가 35장, 네 번째가 36-37장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이 32-33장인데, 그 중에서 32장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와, 엘리후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2a절). 성경에서 인물을 설명할 때에 가문부터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집안임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그 뜻이 ‘그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입니다. 또한 엘리후가 ‘람’ 종족이라고 하는데, ‘람’은 유다지파 다윗의 조상 중에 ‘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우스와 형제입니다. 욥은 우스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가문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자, 욥과 친족관계인 관계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욥의 말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더 이상 설득을 하지 못하자 엘리후가 나타나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2-5절).

이 네 절에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니

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거친 말과 상대를 공격하는 말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난 것보다도 자신이 무분별하게 내 뱉은 말로 인해서 더 큰 낭패를 당하거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언행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던 중, 마온 지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함께 한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식량을 받아서 먹곤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¹⁰가 되어서 마온 지역의 유지였던 나발의 집으로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양 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은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때 만약 다윗이 동족 나발을 죽였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벳엘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대머리아, 대머리아”라며 놀렸습니다. 화가 난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하였더니 수풀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한 상태나,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중요한

¹⁰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추수 때와 같다.

대화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분노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분노 상태일 때도 동일합니다. 청년이 이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분노의 상태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하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엘리후의 서론 발언(6-22)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이 자신보다는 많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6-7절). 큰 연령차로 인해서 약간 주눅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모든 부분에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진다면, 세상의 어리석은 범죄를 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저질러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8절에서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

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그들이 욥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욥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욥의 자기 변증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르게 욥에게 답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낫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17-22절).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속에 할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죽부대에 담긴 포도주가 시간이 날수록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자기 배라는 포도주통에 ‘할 말’이라는 포도주가 가득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제 선친과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옆에

서 들으면, 대화의 내용이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닐 때도 있고, 또 당신들이 경험한 것이 지극히 일부분임에도 전부인 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 갈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에 옆에서 오랫동안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개입을 합니다. “아버지, 그 내용은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 한 내용이 바른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날아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나가서 놀아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욥을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도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욥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딤후2:23)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많

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왜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리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엘리후와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바꾸어보려 하곤 합니다. 상대가 내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예상한 정도로 바뀌지 않을 때 의아해 하거나 실망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세상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지극히 작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십

시오. 그 때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총을 누리시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다가 어느 순간에 격한 감정으로 분노하였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당시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후에는 당신의 감정이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3. 당신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시되

욥기 33:1-33

1 그런즉 읊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7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의 징계를 만나니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
 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증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
 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
 며 젊음을 회복하라 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
 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7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
 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
 겠구나 하리라 29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30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
 이니라 31 읊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라 32 만
 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
 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크심(1-12)

오늘의 본문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
 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읊이여”. 지금까지 읊의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읊을 향해 “읍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
 지만 엘리후는 당당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읊의 이름을 부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의 의미입니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오만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말할 준비가 되었고, 입을 열면 혀가 자동적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솔과 전능자의 기운^{호흡}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자신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1-4절).

엘리후는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이고, 두 사람이 모두 흠으로 지음 받는 존재이니,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충고 장면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8-12절).

엘리후의 말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욥,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기에 결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당신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셔서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욥의 친구들보다는 약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이거나, 욥이 공감하고 수긍할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포장하여 말하고, 좀 더 세련되게 꾸며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 뎨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다며 욥에게 계속해서 무슨 죄의 장작을 삶의 아궁이에 넣었는지 말하라며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게 죄의 장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그 죄의 장작을 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작을 아궁이에 넣은 일이 없는데, 연기가 나니 나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받아서 “당신이 죄의 장작을 넣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충고들(13-33)

엘리후의 욥을 향한 두 번째 충고가 13-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14절).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며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15-17절).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꿈을 꿀 때나 환상을 볼 때뿐만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할 때에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옴 당신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라고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이 계속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에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19-22절).

하나님께서서는 질병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교정해주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몸이 점점 더 야위어 가며, 이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욥에게, “지금 당신의 악성종양이 가득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을 깨우치고 계신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세 번째 충고 장면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 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 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23-28절).

하나님께서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에 청년 때와 같이 젊음도 되찾고, 건강도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재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

시려나 봐요. 나중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시나 봐요”라고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봐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옆에서는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마지막 네 번째 충고 장면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29-33절).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잘 통과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엘리후의 4번의 변론(설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세련되게, 더 교육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한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에다가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보편적인 정답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옳은 지적을 통해서 상대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와 동의어였고,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 불렸고,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들이라 불린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정죄하시거나,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상선벌악의 하나님을 강조하시거나, 비록 네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을 가졌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집을 방문하기만 하셨습니다. 그 방문이 삭개오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말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을 수용해 줌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 보이고, 그가 네 번이나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을 지라도, 그것은 욥에게 적절한 답도 아니었고, 필요한 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옳은 답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지혜롭지 못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으심에도 그의 집을 방문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질병 등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통로로 깨달았습니까? (예.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중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등)
3.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 최근에 상선벌악과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5.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욥기 34:1-37

1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고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몰마시듯 하며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6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18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낮을 세워주지 아니하시

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20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21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흘으시는데도다 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을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움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1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34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 읊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6 나는 읊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불의가 없는 심판(1-20)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행한 4번의 변론(설교) 중 2번째에 해당합니다. 엘리후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에게 음식은 다 먹지 않고 맛만 보아도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듯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서, 참된 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내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프기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또한 욥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도 덕 볼게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도 됩니까?”라고 격분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격분하지만, 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정말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떠나갔습니다. 그 허탈함과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 노래의 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거 나는 몰라
가슴이 뺨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욥은 자신이 완전히 옳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사람들이 도움과 필요를 요청할 때에 외면하지 않았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쏜 화살을 맞은 것 같아서 삶이 뺨 뚫린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세하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시는 분 등으로 설명합니다(10-12절).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은 사실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상선별악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

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16-19절).

엘리후의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옳이여, 아직까지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향해서도 ‘너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높은 사람에게도 ‘나쁜 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위고하의 차별이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일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심판(21-37)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흘으시는도다”(21-25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가는 길과 걸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숨길 수 있다면, 그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 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싱선수들이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는 영상을 통해서 상대 선수를 연구합니다. 주먹이 강한 인파이터인지,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인지, 맷집이 강한지 약한지, 빠른 선수인지 아닌지, 그가 가진 특이한 버릇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상대선수와 비슷한 선수와 스파링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이틀 매치에서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습니다. 1-2회전은 상대가 오늘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탐색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상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의 행동거지를 주목하시고, 욥의 삶을 아시고,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뒤집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엘리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을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울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라”(29-30절).

인간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수 없고, 또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고집이 세고,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항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과거 수 수께끼 가운데, “옛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옛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옛장수가 엿을 팔기는 하지만, 옛장수가 엿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엿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팔아야 잘 팔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장수의 가위질은 “옛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엿이 다 팔릴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 모두 다 아십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심판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으로, 욕이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욕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욕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34-37절).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다하고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소리였고,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두 번째 변론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고, 전능자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러,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사로울 수 없고, 불확실할 수도 없으며, 사람에게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에 모르고 심판하시는 일은 더더욱 없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가 되는 것 같아도 꼭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에게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엘리후의 편을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친척과 같은 욥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은 정

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아니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의 의도가 긍정적인 것이었던 부정적인 것이었던 간에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비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상선별악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분석하지 않고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평생 주님의 통로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와 같은 변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하고, 확실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지혜롭지 못한 적용시킴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바라옵나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태도나 엘리후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나아갔고, 자신은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낮은 자세를 취한 것처럼, 우리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그리고 누군가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엘리후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3.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최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3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 그대는 하늘을 우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9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 치나 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1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12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을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냐 15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16 욕이 헛
되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순수한 의(1-8)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35장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욕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3절).

의를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수한 의’를 행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자기유익을 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억지로 죄를 참으려 했지만 터져 나오려 애쓰는 죄의 수맥에 밀려 의심과 원망이 삶의 자리에 척척하게 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욕이 실제로 의인이었다고 가정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의로움과 죄악이 창조주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써봤자 완전해질 수 없고, 죄를 지어봤자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늘에 닿을 수 없듯,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들 하나

님의 영광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있는 힘껏 돌맹이를 던져도 하늘은 여전하고 구름은 자기 갈 길을 가듯,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뛰다간 자기 힘만 빠질 것입니다. 돌맹이를 던지듯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어봤자 던진 돌맹이가 얼굴로 떨어지듯 죄의 열매로 인해 괴로워할 것입니다. 읊이여!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더할 것 하나 없고, 가릴 것 하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두고 겸허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발 이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고 말씀 들으세요.”

대답을 기대하지 말라(9-16)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대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만 특별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있습니다. 당신 비명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당신 비명을 먼저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셔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부르짖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원망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밤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찌르면 아프다고 울 부짖는 짐승과 지혜가 있는 인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냥 소리치는 입을 이제는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상황을 받아들이고 찬송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줄 때까지 고개 돌리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신성모독을 참고 계시는데, 참아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세요.”

함께 있어주는 사랑

참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욥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정교한 신학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19:21-22)

욥은 고통의 중심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엘리후는 한 사람의 고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처음은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지루한 말들의 주고받음을 관람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고민하는 ‘논리 게임’만 남습니다. 결국 그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엘리후의 논리는 굉장히 치밀한 것 같지만 사실과 다

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같고 구름과 같은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도 사탄에게 욱을 자랑하셨던 분입니다.¹¹ 욱을 특별히 여기시며 자랑스러워하시던 하나님이시기에,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 욱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욱기의 끝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욱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사64:1). 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계1:7). 뛰어도 닿지 못하던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구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욱의 삶 중심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백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막15:34)라고 외치며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올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 논리 게임하던 것을 멈추고 그저 불쌍히 여기며 옆에 있어주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참견하고 싶어도,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자

¹¹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8)

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35장입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침묵하며 옆에서 울어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대답을 기다리는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쏟아지는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상한 마음을 기도로 꺼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지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하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고통의 중심에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풀려 했던 엘리후와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논리계임을 한 적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3. 지금 옆에서 함께 울어줘야 할 ‘웁’이 누구인지 주변을 돌아봅시다.
4.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욥기 36:1-33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
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
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
혔으면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
나니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
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
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16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
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17 이제는 악인
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19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20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 가리라 21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2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28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31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33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

엘리후의 총론(5-33)

36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절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11-14절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반응에 따른 삶의 향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살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됩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요절하고 맙니다.

15-21절에서는 고통은 귀가 열리게 하는 도구이므로, 오히려 반항하지 말고 겸허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22-23절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한 스승이므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24-33절에는 물방울이 안개, 구름, 때로는 비, 우레, 번개, 폭풍우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므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선벌악의 하나님, 환난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시하십시오. 형벌을 달게 받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틀렸으면 틀렸지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 없습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거론됐던 내용의 핵심을 짚어가며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자신감이 극에 달한 엘리후의 태도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엘리후의 교만(1-4)

엘리후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더 들어라, 내 말은 옳은 말이니 당신은 새겨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2-4절).

어른이 아이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욕을 다그칩니다. 인생의 경륜을 비교할 수 없는 윗사람이며, 끔찍한 세월을 지나 녀마와도 같이 흐트러진 욕에게 엘리후는 혹독한 언어로 버린 칼날을 휘두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정답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쉬이 마르고 바람에 흩날리며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식을 갈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경주해도 수수께끼만 더욱 늘어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만물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여 지혜 한 가닥을 잡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실낱과 같이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듯이, 사람을 3분 만나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언뜻 보기에 옳으나 그의 중심은 틀렸습니다. 그의 혀 속에는 자기 의가 있고, 그의 음성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 나 자

신을 높이 세우려 하기에 그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만의 바람이 불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려 할 때마다 겸손의 옷을 고쳐 입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18:12). 내가 나를 높이 세우려 할수록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나를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소유하신 분,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 그리하여 모든 섭리를 꿰뚫고 이치에 통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누구보다 엘리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헛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26절).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2-4절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자랑하며 읊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엘리후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했던 주장과 오늘의 주장이 다르고, 결국엔 유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모순적인 나를 발견합니다. 타인을 향하여서는 논리로 무장하며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변호할 때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매체를 통해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이득을 위해서라면 지성도, 가치관도, 철학도 내팽개치는 추악한 모순이 인간의 내면에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생명의 문이 열리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겸손으로 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뒤쳐지는 것 같고, 낙오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하루라는 색종이를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붙여나갈 때에,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높은 곳에 두고 살았습니다. 끝내 나타날 어리석음과 모순을 허술한 가림막으로 가려보았습니다.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며 잘난 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는 색종이를 초심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하나하나 새겨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로 엮으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3.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시다.
4.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기 37:1-24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 하나님의 입김이 열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둘게 하느니라 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흠어지게 하시느니라 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황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 읊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 땅이 고요

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0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2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1-13)

오늘 본문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켜본 엘리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여겨지게 되자, 대화에 끼어들어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충고와 교훈을 퍼부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네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변론은 32-33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회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욥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34장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불의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전능자이시기에 실수도, 사사로움, 오해도 없는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론은 35장으로, 욥에게 “의롭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은 36-37장인데, 그 중에 36장은 이전의 3번의 변론을 정리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헛된 반항을 삼갈 것을 권고합니다. 즉 “욥, 틀렸으면 그것은 당신이니 하나님은 아니십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36:24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

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36:26-33).

우리말 성경에는 26절이 ‘하나님은 높으시니’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감탄사 ‘헨^{hen}’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성경에서는 ‘보라^{Behold}’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크시니”는 곧 “인간은 낮으니작으니”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놀라움과 그 행하심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아주 발달하여 많은 것들이 풀렸지만 4,000년 전에는 의문투성이였을 것입니다. 땅 바닥에서 증발되어 올라간 물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지,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이 어떻게 비로 바뀌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아주 발달해도 여전히 모르는 영역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생물의 가짓수가 얼마가 되는지, 특히 바다 속 생물의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것을 동물들에게는 어느 능력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정말 미약합니다.

계속해서 37장에서도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

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1-5 절).

하나님께서서는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시지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전기에 (+)극과 (-)극이 있듯이, 구름에도 전기가 있어 (+)극과 (-)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전기의 부딪힘과, 구름 속의 전기와 땅 위의 전기가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천둥이고, 일어나는 방전현상이 번개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소녀는 번개가 칠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딸의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진을 찍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웃어야지요.”

어린 소녀의 대답으로는 좋지만, 성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하면 좀 이상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비롯하여 여러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알지만,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천둥번개가 심한 해는 ~~찾으면~~ 풍년 든다” 속담이 있

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지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핍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8-13절).

많은 비나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자연현상에 따라 움직입니다. 곰이나 뱀과 같은 동물들은 겨울이 오면 굴속으로 들어가 동면을 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도 불게 하시고, 주변을 다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차디찬 바람으로 바다를 얼려 빙산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람뿐만 아니라 구름에 습기를 실으셔서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곳에는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비를 퍼붓게도 하

시며,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비를 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람도 사용하시고, 구름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욥에게 적용하여, 욥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욥의 인생에 눈비가 쏟아지고, 모든 것을 열려버리는 찬 바람이 불어서 욥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만한 반항을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14-24)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한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정리하여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4-15절과 23-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14-15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23-24절).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 욥이 그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삶을 고침으로 회개하여 새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삶의 아궁이에 죄의 장작을 많이 뿜기 때문이 아니었고, 엘리후의 주장처럼 욥이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교육적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습니다.

엘리후는 23절에서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며, 불의와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정의를 굽히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면서도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24절에서 사람이 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

한 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모든 변론이 끝나고, 다음 장부터 마침내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아니더라도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사람들 속에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 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손길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은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매일 매일은 찢어지지도, 삭아 없어지지도 않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준 삶의 자리에 ‘오늘이라는 색종이’를 붙인다면, 우리의 로마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가득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말처럼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는 이름 모를 들꽃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붙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삶의 색종이로 그려가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우리의 로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당신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이었습니까?
3.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현재 상황은 ‘인과응보’의 결과이고, ‘상선벌악(賞善罰惡)’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끝까지 주장하며, 욥을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넣고 정죄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틀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다름 사람을 정죄하곤 합니까?
4.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총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5.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모자이크 종이’를 붙이며, 은혜의 지도와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여

욥기 38:1-41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어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빔장을 지르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 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나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돌아나게 하였느냐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타나심(1-3)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 37장에서 엘리후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보다는 ‘폭풍’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원 의미가 비를 동반하지 않는 바람을 의미하기에, ‘회오리바람’ 또는 ‘토네이도트윈스터’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커녕 서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바람의 힘에 의하며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과 다르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2-3절).

욥은 지금까지 세 친구들에게와 엘리후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말 역시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면 ‘무지한 말’이었고, 그의 답답한 호소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가림막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관용어로 하면 “신발끈을 다시 묶다”와 비슷

합니다. 고대에는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때나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를 띠로 동여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와 바다의 신비함(4-18)

4-18절은 우주를 창조하심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4a절). 천지창조가 될 때에 욥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것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4b절, 새번역)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5-7절).

온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그저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추측하여 측량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새벽 별’은 ‘금성’이나 ‘오리온 성운^{星雲}, Orion Nebula’을 의

미하거나, ‘처음 만들어 진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 별들이 노래했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아들^{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함에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빛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8-11절).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이 지금과 같이 모여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도의 크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인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 있으면 어쩔 줄 몰라하는 작고,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16-18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일본 남동쪽과 필리핀 동쪽의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인데, 그 깊이가 11,034m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넣고, 그 위에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을 갖다 넣고도 236m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신비함(19-39)

19-30절은 하늘의 신비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19-21절).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약 30만km인데,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는 약 9조 5000억km나 됩니다. 그 속도로 200억 년에서 4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인간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22절의 ‘눈’과 ‘우박’, 24절의 ‘광명(해)’과 ‘동풍’, 25절의 ‘홍수’와 ‘우레’, ‘번개’, 26절의 ‘비’, 29절의 ‘얼음’과 ‘서리’, 31절의 ‘묘성’과 ‘삼성’, 32절의 ‘별자리’와 ‘북두성’, 34절-38절의 ‘구름’, ‘번개’, ‘흄덩이’ 등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등을 잘 나타내주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랄 뿐입니다. 39-41절은 동물계에 나타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욥과 엘리후의 긴 변론을 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나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41장까지} 해당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사자(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귀중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날 때에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당시는 우기여서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였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 강이 온 이스라엘 자

손들을 위하여 갈라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師弟之間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갑절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 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겂옷을 벗어 말아서 요단 강물을 찼더니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건넜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요단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겂옷으로 요단 강을 치니 물이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그 때는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하여 요단 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 소중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의 본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옴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허탈해 한 것과, 모든 자녀를 한 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온 몸에 도진 악성종양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작 옴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옴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옴을 난도질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가르치려고 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옴에게 정말 필요한,

움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에 오해가 더해져서 속이 많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시거나 원망이 깊어져 체념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나 예배시간 설교자를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아주 또렷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의 색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붙여왔고, 그 색종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바래지 않을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 오셨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라는 삶의 색종이를 믿음으로 붙여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옳과 같은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
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를 향해 호흡을 할 수 있
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붙여가게 하시고,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자연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아주 또렷하게 다가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4.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삶의 색종이를 붙여가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느냐?

욥기 39:1-30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 그것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6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7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9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 11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13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14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15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6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17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18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는 나라 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22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23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항িং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26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28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29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사자와 들짐승들(1-12)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8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자연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사자’, ‘무리 중에서 사냥을 담당할 정도의

사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나머지 동물들은 굶어죽어야 합니다. 그 사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사자에 비하면 참 미약합니다. 까마귀는 나무 위에도 집을 짓고 삽니다. 그 까마귀를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먹이를 공급하십니다.

이어 산 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1-4절). 산 염소는 험준한 산에서 서식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절벽처럼 보이는 바위산을 가로질러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닙니다. 그러하기에 산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찾아보니까 염소의 임신기간이 150일 내외라고 합니다. 욥도 산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슴도 고라니에서부터 시작하여 루돌프 사슴으로 알려진 순록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슴은 임신기간이 약 180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뛰어노는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욥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5-12절). 나귀 종류는 공통적으로 겁이 많아서 빨리 도망을 치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매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들에서 거주하며, 염분이 있는 습지의 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또 들소에 대해 말씀합니다(9-10절). 들소는 강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에게 매여서 밭의 이랑을 가는 일이나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쌓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들소의 위험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들소들이 입을 벌리며 몰려오는 것이 마치 사자들이 사냥감을 찢으며 그 입을 벌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들소를 데려다가 길들여서 농사에 이용해 볼래?”라고 농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능력 밖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조류들(13-3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타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타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13-18절).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알을 낳고서 땅에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비록 타조가 날지 못할지라도 말과 말을 탄 사람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조는 최고 속력으로는 시속 9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타조를 위해 변호를 하면, 타조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조는 직선거리로 약 20km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성남시청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20km 정도 됩니다. 타조의 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에

개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동물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을 언급하며(19-25절), 힘을 강조합니다. 힘을 나타낼 때의 단위를 ‘마력(馬力)’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의 힘’입니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의 물체를 1m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말의 목에 훔날리는 갈기를 준 것이 너냐? 말이 메뚜기처럼 뿔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너냐?”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달릴 수 있으며, 칼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매와 독수리입니다(26-30절).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나왔었습니다. 매와 독수리에 속하는 맹금류는 타조와 더불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에 속합니다. 매는 계절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또한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벼랑 끝 바위 사이에 둥지를 튼다. 또한 독수리는 좋은 시력으로 2,000미터 상공에서도 들판에 기어 다니는 들쥐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습니다. 또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의미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들을 키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따뜻한 남쪽을 향하는 것, 높은 곳에 자신의 둥지를 만드는 것, 뛰어난 시력으로 사냥을 하는 것, 시체를 먹이로 해서도

자라는 것 등은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옴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다를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놓으시고,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또 파도의 크기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하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옴에게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았느냐고 물으시고, 하늘의 해와 별들, 그리고 눈, 우박, 홍수, 등등도 다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등 여러 동물들을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옴은 천문학이나 해양학, 동물학을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한 순간에 자녀를 가슴에 묻고, 온몸을 뒤덮은 악성종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세 친구들과 엘리후로부터 온갖 죄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자연현상 이야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똥맞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옴아!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네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전부 틀린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마!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두 가지의 의미로 들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처럼 들리지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우주, 바다, 자연재해, 동물계 등)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더 중요한 욥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

둘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밖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바다와 자연현상과 동물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욥은 그 큰 우주와 바다에 비하면 자신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일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집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거나, 서재를 나와서 집 앞 마당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설교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설교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가시는 주님을 또렷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한 장 붙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찢어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지도, 삭아 없어지지 않는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욥이 현재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사자와 까마귀, 여러 들짐승들과 매와 독수리의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들리지만, 그런 동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고, 그 상황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상황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들을 주심으로 잘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색종이를 성실하게 붙여가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인생의 질곡을 걸을 때에, 상황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 삶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그 상황 밖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기 40:1-24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 너는 위엄과 준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찌서 은말한 곳에 돌지니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혜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목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8 그 빠는 놋관 같고 그 빠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20 모든 들 짐승

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22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나?(1-14)

38-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1-2절).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었거나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뵈게 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직면하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3-5절).

이 말씀이 38-39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자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은 스스로를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하다’의 의미는 ‘작다, 가볍다, 보잘것없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직시했고, 자신의 삶과 존재가 꽤 무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또한 자신의 인생에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와 바다와 자연 현상, 동물의 세계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욥 자신은 자연현상과 동물들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많고, 정말 따지고 싶은 말도 많았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면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이 질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8-3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6-7절).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똑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38:3)”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허리를 묶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의 옷은 전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때나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를 띠로 동여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8-9절).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질문들은 아주 강한 반대의 의미입니다.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는 “내 공의_판결을 결코 부인_비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

느냐?”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결코 악하다 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는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결코 없다.”,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는 “너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결코 낼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그 주인을 이해하는 부분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10-14절).

이 부분은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빨리 파악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대신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위엄과 존귀로 화장을 하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서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은 짓눌러서 땅에 묻어 버리시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짐 캐리 주연의 2003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휴가를 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1주일 동안 전능하

신 하나님의 역을 대신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주일동안 전능한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기도소리가 귀찮아서 복권당첨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한꺼번에 들어주었는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어서 당첨금이 17달러밖에 되지 않자 폭동이 일어나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을 끌어당겼더니,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전능함이 단지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베혜뿔의 경이(15-24)

15-24절은 ‘베혜뿔’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개역한글성경에서는 ‘베혜뿔’을 ‘하마’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베혜뿔’이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개역개정성경에는 히브리어 그대로 ‘베혜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대한 동물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옳은 물론 거대한 짐승인 ‘베혜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베혜뿔은 두 발로 걷는 옹과는 다르고, 또 먹은 것도 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16-18절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뿔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16-18절).

베혜뿔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그것이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육상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의 1-3위가 코끼리, 코뿔소, 하마입니다. 베혜뿔은 이 세 동물 중에 하나, 또는 이 세 동물을 합친 것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19-24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켈 수 있겠느냐”(19-24절).

고대에서는 거대한 동물을 사로잡거나 죽일 때에는, 먼저 코를 꿰거나 틀어막아서 입을 벌리면 그 순간에 목구멍에 창을 찔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옴아, 너는 작은 동물들을 잡는 일도 쉽지가 않지? 특히 베혜뿔과 같은 크고 강한 동물은 잡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하지만 나는 베혜뿔과 같은 큰 동물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린단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하기

짜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며,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것보다 높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려가게 하시는 인생의 지도가 찢어지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지도 않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는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

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색종이를 신실하게 붙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옅처럼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 전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알아, 매일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붙여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려 가시는 인생의 지도가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혹 하나님을 직면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3. 자신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는 달랐던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때에 또는 그 후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삶의 색종이를 붙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다 내것이니라

욥기 41:1-34

1 네가 낚시로 리위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두겠느냐 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찢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값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15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단혀 있구나 16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17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19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
 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22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
 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23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
 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24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맺들
 아래쪽 같이 튼튼하구나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
 나리라 26 칼이 그에게 쫓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쫓히지 못하는구나 27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28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구나 29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
 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30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끼로 친 자
 국을 남기는구나 31 깊은 물을 솔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32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34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나라

불가능한 통제(1-11)

예전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
 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 글을 접했는데, 그 주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
 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실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사람관계와 배우자, 자녀, 친구, 업무, 학업,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 하물며 신앙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인간의 통제욕구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 동물인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1-2절에 기록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땀 수 있겠느냐? 펴 수 있겠느냐?”의 동사들은 바로 리워야단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7절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에서, ‘찌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레”는 ‘완벽하게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본문에 나온 밧줄과 갈고리 같은 지혜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노력하여 삶의 문제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근심과 두려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좌절감을 극복하고자, 상황과 문제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목적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을 막는 역청을 발라 탑을 쌓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사울과 군인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골리앗과 비슷한 모습으로 따라 하기 위해 갑옷과 투구를 씌어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리워야단의 모습(12-31)

리워야단은 12절부터 33절에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 힘과 기세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대한 동물이지만, 그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리워야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꺾인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툄’은 “바닥에 세계 곤두박질치다”는 뜻입니다. 리워야단 앞에 압도되어서 두렵게 떨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결과 때문에, ‘바닥에 세계 곤두박질쳐서’, 의지와 기력과 희망이 상실된 것이, 지금 우리의 심정과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자세는 바로 통

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제가 뜻대로 안 되어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으로 죄를 짓는 것 역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 통제할 수 없는 리위야단도 결국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풀어 말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롬11:36)는 말과 부합됩니다. 리위야단과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여 그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해주세요!”라는 고백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예전 교회학교의 청소년 사역을 했던 시절,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에 자주 가는 자녀들에게 “너무 교회 오래 있지 마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자녀들이 교회에 너무 빠지게 되면, 성적이 떨어져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은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빠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정신을 훌쩍 뺏어 가실 것 같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 믿으면 안 돼, 너무 열심히 하면 나를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보내시는 것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걱정애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되 완전히 빠지면 안 되고, 내 것은 챙겨야 한다는 욕심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남김 없는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부담스럽고 두렵다”는 생각은 모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잠재 능력과 성품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가정에 방문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놀랍고 영광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고, 밖에서 양 치는 일만 시켰습니다. 더구나 이새의 집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¹²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미 이새의 머릿속에는 아들이란 범주 중

¹²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향치며 (삼상17:20)

에, 다윗은 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7:10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군인으로 있는 다른 아들들의 음식 전달을 위한 심부름 때문입니다. 형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그의 안부보다는, 키우는 양에 대한 걱정과 이를 지키지 못한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¹³ 어찌 보면 다윗은 양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가족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는 상처가 있었고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가족에게조차 억압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왕의 그릇도 아니며,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순기능의 사람이 아니라 역기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되니라”(삼상 16:13)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그 이후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감동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이 세차게 돌진하여

¹³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삼상 17:28)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차게 돌진 하시고 사로잡으
 니” 다윗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고 싶은 말도 못했고,
 억압되었던 그가 심지어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고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자
 억압된 것이 풀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
 님이 그를 강력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7에 “남자가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닌
 역리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순리가 아닌 역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순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32-34)

하나님의 창조물인 리워야단도 한 번 움직이면 주변의 모든 것들
 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
 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그동안 우리를 순리대로 못
 살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근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런 두려움의 근원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
 리 삶에 일어날 때, 본문 32절과 같이 깊은 바다, 즉 내가 문제
 의 깊은 바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채 나

는 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리워야단이 가졌던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심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인생의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믿음의 색종이를 붙여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로마를 향해 더욱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리워야단을 통해 인간의 통제 욕구를 들여다 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인내로 하루라는 색종이를 열심히 붙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경험하며, 우리의 로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삶에서 그동안 통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 통제하지 못한 부분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3.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4.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변화된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기 42:1-17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

신지라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 받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고난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폭풍우는 비를 동반하지 않은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휩싸여 있던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을 잠재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8-41장에 걸쳐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나 놀라워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하였던 욥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5-6절).

주를 뵈옵고 회개하는 욥(1-6)

우리가 때로 고난, 어려움, 질병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싶고 때로 따지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욥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왜 따지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질문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5-6절).

질문을 가지고, 때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렴풋이 듣던 그 하나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 더 주께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 “왜?”라는 질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면,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하나님께 따지려 대들지만,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가까이 나가도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욥을 변호해주는 하나님(7-9)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7-8절).

이 두 절 안에 하나님은 욥을 네 번이나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주셨고, 그가 옳다고 인정해 주셨

습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욥의 용서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을 용서해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과 욥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욥에게 대한 잘못이면서 동시에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욥의 삶(10-17)

이어지는 10-17절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이후의 회복된 욥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주셨을 뿐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갱아주셨습니다.

욥의 말년에 불어난 양, 낙타, 소, 암나귀의 숫자가 처음 1장에 언급된 짐승의 숫자에서 정확하게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12절). 모든 소유를 두 배로 회복시켜주셨지만, 이 모든 소유 속에 그의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 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뎠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신 세

명의 딸들은 땅 위의 어느 여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은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16-17절).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심의 세계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막의 글귀로 마무리 됩니다.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자막의 내용처럼, 욥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욥은 분복을 누리며 자손의 자손을 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평가는 구구절절 옳아 보였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들

의 신앙의 잣대와 기준으로 욕을 재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욕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고 오히려 욕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판단은 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기준에 근거하고 우리의 편견에 근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 삶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욕이 겪었던 고난은 욕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는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엄연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3)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된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회오리바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해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사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전격적으로 진격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도 그가 지으셨기에 그의 소유이고, 인간도 그가 만드셨기에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가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뒤범벅이 된 세상 속으로 진격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모셔 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대면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휘몰아치는 고난 속에서 이리 저리 흔들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고난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오리바람 가운데 진격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야, 휘몰아치는 역경 속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잔잔할 때,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매일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역경이 잘 몰아치지도 않을뿐더러, 역경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오리바람 가운데 대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광풍에도 동요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대한 회오리바람인 태풍의 그 한가운데는, 즉 태풍의 핵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잔잔한 곳인 것처럼, 회오리바람 한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다른 역경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동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욕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 한 줄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Happily ever after in Jesus Christ…….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회오리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진격해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
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대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선불리 나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
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
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여전히 물결치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옳과 같이 견실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의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2. 나의 질문이나 기도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4.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게 내려질 하나님의 한 줄 평가는 무엇일지를 묵상해봅시다.